

2025
No.124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COSMO

최고를 향한 새로운 도전!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2_ 개교 120주년 기념식
- 04_ 모교 소식
- 08_ 경영대 120주년
- 10_ 교우회장 취임식
- 12_ 98학번 동기회 발대식
- 14_ 명예교수 사은회
- 16_ 힐링 트레킹
- 20_ 골프대회
- 26_ 교우회 행사일정
- 27_ 교우 동정
- 30_ 교우 기부
- 32_ 교우 인터뷰
- 38_ 교우 기고
- 45_ 학번별 소식
- 63_ 교우 신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5 통권 제124호 Vol.46

발행일 2025년 06월 30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동섭
편집인 양정인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310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개교 120주년 고려대, ‘NEXT INTELLIGENCE’로 미래 120년 연다

- 개교 120주년 기념식 개최, 비전 2040 발표
-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남구(경영83)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수상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재호), 고려대 교우회(회장 승명호)와 함께 5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캠퍼스 인문계 중앙광장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의 12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기념사 및 식사 ▲축사 및 축하영상 ▲120년사 전달 ▲개교 120주년 기념 영상 ▲2040 비전 발표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시상 ▲축하 공연 및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고려대는 이제 민족과 국가를 넘어 인류 미래에 공헌하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대학’으로 나

아가야 한다”라며, “우리는 자연계 중앙광장 조성, 첨단 분야 연구 인재 영입, 디지털 캠퍼스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등 미래를 향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학 본연의 사명인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원 총장은 “고려대의 지난 120년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120년과 함께한 역사”라며, “널리 인재를 가르쳐 나라를 구한다는 숭고한 건학 이념으로 고려대는 지난 120년 동안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당당하게 수행해왔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개교 120주년을 맞아 인류의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한 차원 더 높게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원 총장



승명호 교우회장



김재호 이사장



김연아 교우

승명호 교우회장은 “오늘날 고려대의 위상은 학생, 교수, 직원, 교우들이 흘린 땀과 열정의 결실”이라며, “그 배경에는 언제나 모교를 사랑하는 교우들의 강인한 결속과 깊은 애정이 든든히 자리잡고 있다. 고려대 교우회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부심과 전통 위에 모교와 사회를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 소명과 임무를 지속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쿼텀 점프를 함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교우(체교09)는 “고려대는 오늘 ‘쇼트 프로그램’을 마치고 ‘프리 스케이팅’을 시작한다. 고려대의 더 높은 점프를 힘차게 응원해달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 허구연 KBO 총재,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수상했다.

박기석 교우(시공테크 회장·독어독문69)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교육기업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창업해 대한민국 디지털 교육, AI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허구연 교우(KBO 총재·법학72)는 40여 년간 야구 해설의 전문가로, 한국 야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KBO 총재 재임 중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연간 1,000만 관중 돌파’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김남구 교우(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경영83)는 2005년 한국투자증권권을 인수하는 등 투자금융(IB)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주도했다.

행사에 앞서 1966년부터 농촌 개발, 수자원 관리, 산업 개발 등 개발 지원하기 위해 1억 7백만 달러 규모로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UNDP의 한국원조 60주년 기념 표지식 제막식이 있었다. 또한 오후 1시부터 시작된 2부 행사에서는 4월 18일 모교를 출발, 지역교우회와 함께 2,025km를 주행하여 5월 5일 모교로 돌아오는 자전거 국토 종주팀의 해단식이 있었다. 이어 관현악단의 다채로운 공연과 KU83 Harmony 합창단의 공연으로 개교 120주년을 기념했으며 ‘엘리제를 위하여’, ‘지아의 함성’ 등 뜨거운 응원단의 무대가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모교 중앙광장에서는 포토존과 ‘고대네켓’ 포토부스, 캠퍼스 사진전 등 재학생과 교우, 교우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들로 가득했다. 자녀와 함께 모교를 방문한 교우 가족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과 고려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관람도 마련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수상자(왼쪽부터 승명호 교우회장, 허구연, 고소희·김남구 회장 대리 수상자, 박기석, 김동원 총장)



UNDP식수와 표지식(유엔개발계획 UNDP 한국원조 60주년 기념으로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외교부와 UNDP의 공동출자로 모교에 UNDP 서울정책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캠퍼스 사진전(캠퍼스의 계절별 변천사와 가장 뜨거웠던 순간 등을 담았다.)



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 특별전 '120년의 高·動, 미래지성을 매혹하다'

120년의 가치와 미래를 담다...국보·희귀자료 공개

최우수상은 체인지메이커스 활동을 통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며, 창업까지 이어 나간 소셜리 팀이 받았다. 관내 봉사자와 기관을 연결하는 소셜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회봉사 수요자와 제공자를 효과적으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 유재민(경영16)은 “고려대 지속가능원과 협업하며 우리 근처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솔루션을 기획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대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디지털로 실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은 앞으로도 학부 및 대학원생은 물론 동아리와 다양한 체인지메이커스 팀들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교내 구성원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업(강승모 부회장·경영90)은 작년 5월 21일(화) 본관 제1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업, 고려대 '체인지메이커스' 프로그램 발전 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강승모 부회장은 “이번 발전 기금이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도서관은 고려대학교 백주년삼성기념관 1층 아트리움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 특별전 '120년의 高·動(고·동), 미래지성을 매혹하다'를 진행중이다. 전시회의 개막식은 4월 30일(화) 오후 4시에 열렸다. 이번 특별전은 고려대학교가 120년간 추구해 온 학문과 실천의 가치, 그리고 미래 120년을 향한 비전을 담고 있다.

전시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 희귀자료 120건, 170여 점이 공개된다. 대표 유물로는 국보 ▲동궐도 ▲훈천시계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등이 전시되며, 90년 만에 공개되는 현전 최고본 ▲훈민정음,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발전소인 '전기등소(電氣燈所)'의 위치가 기록된 ▲경복궁배치도 등의 희귀자료도 포함된다.

아울러 16책으로 구성된 <동궐도>는 보존 안전성을 고려해 원본과 복제품을 함께 전시하며, 2주 간격으로 원본을 교체해 선보일 계획이다.

전시는 고려대의 이름을 딴 고·高, 려·麗, 대·大, 학·學, 교·校 5개의 전시실로 구성되며, 각각의 주제로 다양한 문화재와 자료를 소개한다.



강승모 교우

고교 '좌표를 찾아서'에서는 <혼천시계>, <지구전후황도남북향 성합벽도> 등의 천문 자료와 <천명도해>, <민영환 유서> 및 혈죽, 김홍도의 <송하선인취생도>, <기해>명 두종사 동종, 그리고 <감로탱> 등 종교, 철학 자료가 전시된다.

려麗 '일상의 품격, 그 아름다움'에서는 출토 및 전세복식, 장신구, 도자기, 현대미술품에 드러난 미적 감각과 그 정신을 기린다.

대대 '세상을 담은 시선, 남겨야 할 길'에서는 <표해록>, <북행록>, <서유견문> 등의 견문록과 <대동지지>, <장용형 본영도형>, <금강산도>, <관동승경도> 등의 지도·회화 작품이 공개된다.

학學 '배움의 여정'에서는 <왕세자입학도첩>, <허목 전서 함취당>, <오주서종박물고변>, <우마양저역병치료방> 등을 통해 배움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과 도전을 그린다.

교校 '120년,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온 시간'에서는 <3.1운동 재판 기록>, <제헌헌법 초고>, <4.19혁명 부상자 명단>, 산업공학과 한민홍 교수의 자율주행차 <KARV-1호> 등의 자료가 전시되며, 고려대학교의 정의와 실천, 미래 개척의 역사를 소개한다.

고려대학교는 이번 특별전의 관람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전시는 5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고려대 박물관 제1·2 기획전시실과 현대미술실, 인촌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디지털 플랫폼 시대, 협력의 자세로 나아가야”

2025년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
제6회에 연사로 나서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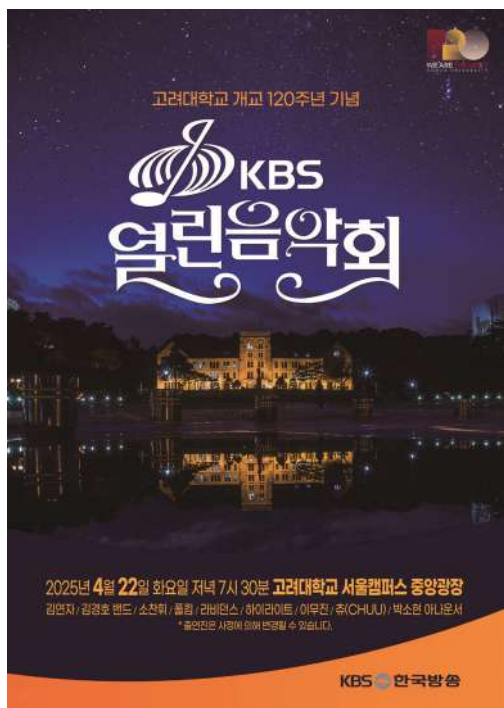
고려대학교는 5월 15일(목) 오후 3시 SK미래관 최종현 홀에서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초청해 '2025년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 제6회를 개최했다.

최종구(무역76) 국제금융협력대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금융협력대사로 활동 중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주도해 외환시장 안정을 이끈 바 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는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특별 강연 프로그램이다.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온 리더들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큰 영감과 교훈을 전하고 창의적 인재로의 성장을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스포츠, 문화, 예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를 초청해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강연에서 최종구 대사는 디지털 플랫폼과 통화·금융 체제의

개교 12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



열린음악회 포스터

변화가 초래한 '협력과 반목'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최 대사는 “디지털 플랫폼은 인류의 고도화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를 분열시키는 무기로도 작동한다”며, 이러한 이중적 속성이 정치·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실제 없이도, 사람들의 믿음이 모이면 시장이 형성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매개체를 넘어 사회 질서까지 재편하는 힘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최 대사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관세 무기화 ▲환율 압박 전략 등을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맞물려 기존 국제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일수록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지키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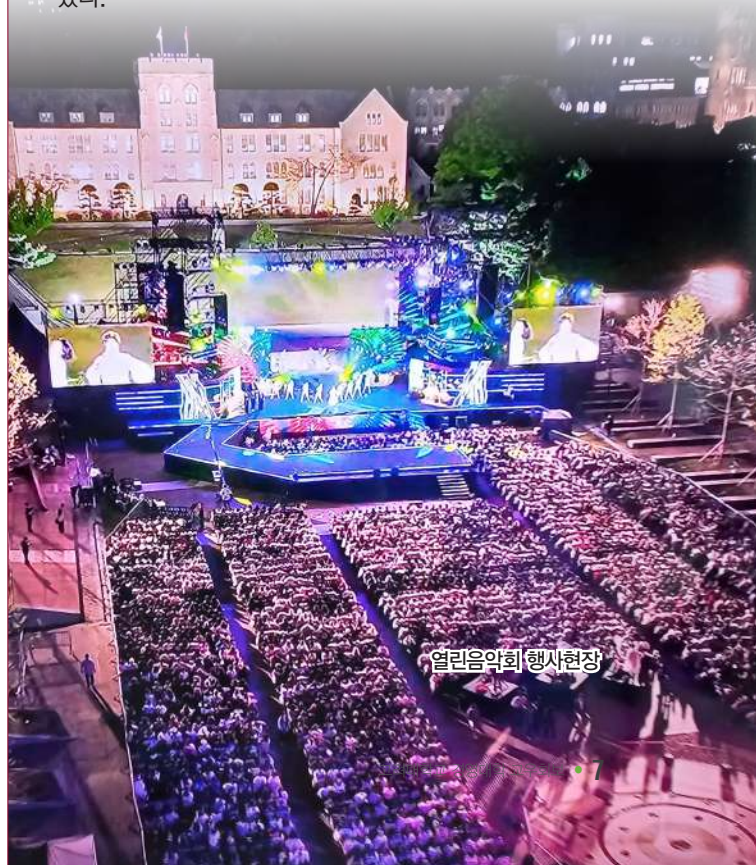
지역 주민과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

4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모교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KBS 열린음악회'를 열었다. 모교 재학생, 교우, 교직원, 지역 주민 약 6천여명이 중앙광장을 가득 채웠다.

'KBS 열린음악회'는 중앙광장을 새로 단장한 이후 첫 대규모 행사이며 1905년에 개교한 고려대의 역사적 발자취를 조명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아 특별히 기획됐다. 인근 지역인 제기동, 청량리동 주민과 함께 모교 120주년을 축하하고 축제를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됐다.

공연에는 이무진, 폴 김, 소찬휘, 하이라이트, 츄, 라비던스, 김연자가 무대에 올랐으며 김경호 밴드의 민족의 아리아 무대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기립하여 환호했다.

공연은 KBS 1TV를 통해 5월 4일(일) 오후 6시에 방영됐다.



열린음악회 행사현장



“KUBS, Spearheading Next Intelligence”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개교 120주년 기념식 성료



희망편지를 넣는 65학번 서재봉 교수와
25학번 이현우 학생



타임캡슐

경영대학(학장 김연수·경영8)은 5월 23일(금) LG-POSCO경영관 4층 수펙스홀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이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이재학과 창설 12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한국 경영학 교육의 출발점이자 산실로서의 위상을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경영대학 학생홍보대사 KUBE 회장 신우진(경영23), 부회장 강민지(경영23)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다. 김동원(경영78) 총장은 “1905년부터 지금까지 120년의 여정은 경영대 선배 교수님들의 깊은 학문적 성취와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김동원 총장은 “시로 상징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 경영대학이 미래 지성과 혁신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승명호(무역74) 고려대학교 교무회장은 “경영대학은 선배님들의 땀과 열정으로 120년 동안 찬란한 역사를 쌓아올릴 수 있었다”라며, “재학생 여러분은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갈 미래의 주역들이다. 모두가 뜨거운 도전정신과 굳건한 신념으로 세계를 무대로 힘차게 도약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동섭(경영89) 경영대학 교무회장은 “선친이신 고(故) 이상일(상57) 회장님은 늘 경영대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며 감사의 표현으로 기부를 통해 모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셨



축사 전하는 이동섭 교우회장

다. 저 또한 경영대에서 배우고 성장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는 늘 고려대 경영대학이 있었다. 120주년을 축하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최고의 사학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상65) 고려대학교 교우회 명예회장은 “모교는 언제나 저에게 든든한 배경이자 힘이 되주었다. 기회 되는대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오늘 120주년 기념식에서 60년전 고대에 입학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실감한다”라며 “2085년 개교 180주년이 되는 때에는 25학번 여러분이 후배들에게 고려대와 경영대학이 얼마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모교인지를 잘 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영대학의 12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대학 1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신호정(무역86) 위원장은 ▲보성전문학교 설립 ▲경영학과 신설 ▲경영대학 승격 ▲글로벌 경영대학으로의 도약 등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을 선도해 온 경영대학의 주요 발전사를 간단히 정리했다.

김언수 학장은 학사 및 발전방향 보고를 통해 “120주년을 맞이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한국 경영학의 역사이다. 그동안의 많은 변화는 선배님들 덕분이다”라며 “경영대학의 방향은 ‘KUBS, Spearheading Next Intelligence’이며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2040 비전’을 통해 글로벌 20위 경영대학을 목표로 할 것이며, 사회에 기여하고 AI 시대에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언수 학장은 가을에 경영대학의 60년을 내다보는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추진해왔던 주요 기념사업들이 소개됐다. ▲‘구술로 듣는 경영대학 120년사’ 영상 프로젝트 ▲세계적인 거장 이우환 작가의 예술작품 《관계항-장소성》 설치 ▲오얏나무, 회화나무, 잣나무 등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수목 조성 등이다.

이날 기념식의 특별순서인 ‘세대 간 메시지 교환 및 타임캡슐 이벤트’에서는 서재봉 교우(경영65)가 2025학번 신입생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낭독하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현우 학생(경영25)이 2085년 입학생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읽으며 타임캡슐에 넣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

캡슐에는 1965년 당시 고려대 입학자 호외 기사, 경영신문 등이 담겨있으며 현대자동차경영관 역사관에 전시되어 2085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1부 순서는 모든 참석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교가를 제창하며 마무리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나 광 교우(상65)의 건배사와 함께 오찬이 이어졌다. 나 교우는 교가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여 ‘고려대 경영대, 영원히 빛나고 빛나고 빛나고’라고 건배 제의하여 분위기를 돋웠다.

지난 120년간 한국 경영학의 기틀을 다져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앞으로의 120년 또한 세계를 향한 도전과 혁신의 여정을 힘차게 이어갈 것이다.



오얏나무



이우환 작가의 예술작품 《관계항-장소성》





승명호 교우회장

제35대 교우회장 취임식

열정의 리더십과 함께하는 지속발전의 길 열다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2025년 3월 27일 (목) 정기총회를 열고 제35대 교우회장으로 승명호(무역74)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승명호 회장은 앞서 2024년 12월 18일 개최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임시 위원장 이학수·상학65·제32대 교우회장)에서 만장일치로 후보에 추대되었으며,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 인준을 거쳐 향후 3년간 37만 교우의 리더로서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맡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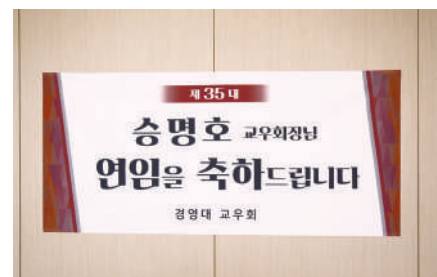
이날 총회에는 김동원 모교총장을 비롯해 전병일(생물71) 생명과학대 교우회장, 전현주(가교78) 여자교우회장, 이동원(법학82) 겸선회장 등 25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교우회장 인준안건’은 태범석(화학공76) 공과대 교우회장이 임시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처리됐다.

승명호 회장은 수락 연설에서 “34대 교우회장으로 몸담았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더없는 보람과 행복”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승명호 회장은 하버드대 동문회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강력한 국내 인적 네트워크와 교우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교우들에게 힘이 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우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축사에서 “승명호 회장의 연임은 지난 임기동안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김동원 총장은 “오래된 교우회관의 환경을 개선하여 교우들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과 학생회관 리모델링을 후원하고 선후배 간 결속을 느끼도록 고연전 후배사랑버스 운영하는 등 지난 임기때 있었던 성과를 바탕으로 교우회의 저력을 굳건히 다질 것”이라며 개교 120주년, 모교의 재도약에 교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제65호 교우회보 기사 발췌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사명 다할 것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교우회장의 중책과 함께 봉사할 기회를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교 김동원 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우회장 연임을 더없이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이 가슴 깊이 밀려오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할 때까지 계속하라”는 격려로, 또 한편으로는 “잘 했으니까 좀더 해보라”는 말씀으로 새겨두고 헌신과 봉사를 하겠습니다.

34대 교우회장으로 몸담았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더없는 보람과 행복이었습니다. 교우님들께서 34대 교우회에 보내주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격려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우회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35대 교우회 출범을 맞아 저는 주어진 소임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모교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세계를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군단의 모습으로 교우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교우님들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우여러분! 전 세계 최고 동문회라고 하는 하버드대학 동문회가 발전을 거듭하는 이유는 먼저 하버드대학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문들에게 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사회 각 분야의 치밀한 네트워크는 서로에게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작용합니다. 또 동문들의 기부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축적된 막강한 자본력은 동문회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하버드대는 세계 각지에도 막강한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1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려대 교우회도 강력한 국내의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면, 교우들에게 힘이 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방향성을 염두에 두면서 교우회에서는 지난 2월에 교우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한데 불과 1주일 만에 무려 2만 명의 교우님들이 응답해 주셨고 응답 주신 자료를 토대로, 그간 추진해 왔던 사업을 점검해 지속할 사업과 미진한 사업을 분류하고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120주년을 맞이하는 고대교우회를 하버드대 동문회와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로 만들려면 ‘고대인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35대 교우회는 2025년 모교 개교 120주년과 고연전 100주년, 2027년 교우회 창립 120주년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3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5대 교우회장에 취임하면서 교우님들의 고대 교우회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 적극적인 참여 속에 역사에 뜻깊은 기록을 남기는 35대 교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학번 동기회 발대식

일시

2025년 3월 31일(월)

장소

역삼동 이도곰탕



경영대 교우회 주최로 2025년 3월 31일(월), 98학번 교우들이 동기회 결성을 위해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다. 행사는 이규원 95학번 동기회장이 운영하는 이도곰탕에서 열렸다. 이날 첫모임에 909 회장인 최창규(경영90) 부회장, 92학번 윤선규 상임이사, 93학번 김현수, 윤희도 교우, 96학번 박원태 교우, 전년도 '교우의 밤'을 주관했던 97학번 동기회의 김영일 상임이사과 99학번 남광민 교우, 00학번 유진 교우가 자리를 함께했다. 98학번에서는 B반 정현승, 조종관, C반 송명수, 신승현, E반 김경태, 한경선 교우가 참석했다.

교우들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재학시절의 추억, 자녀양육,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싶은 동기들의 근황을 확인하며 즐거운 분



위기였다. 특히 김영일(경영97) 교우는 전년도 제42회 교우의 밤 행사를 앞두고 97학번동기회를 결성할 당시 동기들에게 연락하는 등 교우의 밤 장학금을 어떻게 모금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전하고 '꿀팁'을 소개하며 98학번 교우 모임의 첫 발걸음을 응원했다.

B반 조종관 교우는 “직장 생활동안 타학교 졸업생들과 섞여 있다가 오늘 모임에 와보니 이제야 내가 고대인임을 강하게 느낀다. 동기들을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다. 힘을 합쳐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B반 정현승(경영98) 교우는 “그동안 연락이 잘 안됐던 동기들을 많이 찾는 기회로 생각하고 연말 행사를 즐겁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반 송명수 교우는 “98학번들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

드린다. 부족하지만 동기들과 마음 잘 맞춰서 연말 행사를 잘 준비하겠다”며 이날 모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김현수(경영93) 교우는 “교우의 밤 장학금 모금 준비할 때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회장님과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격려했다.

이동섭 교우회장은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질때 행사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서로 잘 어울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교우회의 여러 행사들도 참여하면서 다른 동기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소통하며 유대관계를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라.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교우회 활동을 하다보면 98학번들의 모임도 많이 활성화 될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명예교수 사은회

2025년 5월 8일(목) 오후 12시 30분 경영대 교우회는 모교 패컬티하우스 송림에서 명예교수 사은회를 열었다.

명예교수 서른 분 중에서 지병으로, 다른 일정으로, 여행으로, 갑작스런 감기 몸살로 참석하지 못한 열아홉 분을 제외한 열한 분(신수식, 어윤대, 황규승, 신준용, 윤영섭, 강호진, 유관희, 문형구, 이만우, 김익수, 권수영)과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 김언수(경영81) 경영대학장, 양정인(경영95)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사은회는 오랜만에 신준용 명예교수가 강원도 삼척에서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동섭 회장은 “그동안 날씨가 쌀쌀했는데 다행이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화창한 날 교수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기쁘다. 교수님들께서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주



신 덕에 모교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모교가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명문 학교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은사님들께 한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학교 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언수 학장은 “다음주 경영대학 주최 사은회와 5월 23일(금)에 예정된 경영대학 120주년 기념행사에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하고싶다”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고 “후임 교수들의 경영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끝으로 명예교수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는 개인 근황, 건강관리, 경영대학의 나아가야 할 방향, 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재임시절 추억을 나누는 등 분위기는 유쾌했다. 경영대학 교우회는 미리 준비한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선물을 명예교수께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영대학 교우회

제2회 힐링트레킹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대형 행사인 제2회 힐링트레킹이 개최됐다. 이날은 아침 일찍 비오고 그친다는 예보와는 달리 전날부터 비가 계속되며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였지만 집결지인 인촌기념관 앞은 행사에 참가하는 교우들로 붐볐다.

작년 트레킹 행사는 우천으로 전면 취소됐었다. 이번 행사는 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기존에 예정했던 트레킹을 취소하고 백주년기념관 박물관 관람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비공식 행사로 진행했다.

교우들은 백주년기념관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 특별전 ‘120년의 高·動, 미래지성을 매혹하다’



를 관람하며 수집된 고서와 회화 작품, 90년대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한 자료 등 다양한 문화재와 자료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여정을 공감했다.

관람을 마치고 오찬장소인 패컬티하우스로 이동했다. 김평국 부회장은 “비 예보에 행사취소를 염려했는데 많은 선후배님들의 참가신청과 호응으로 행사를 열었다. 날씨가 맑으면 자연도 만끽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을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식사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오찬시간동안 동기간, 선후배간 정다운 대화가 오갔으며 최다 참가(19명)한 72학번 동기회의 남덕우 회장, 교우회 행사

로는 처음 참가한 강재윤(경영11) 교우 등 여러 교우들의 소감을 전하는 순서를 가졌다. 사라 아자리(경영16) 교우는 사회자 안종욱(경영89) 교우의 노래 요청에 ‘막걸리 찬가’로 화답하는 센스를 발휘하여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부르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참가한 교우들에게 경영대 교우회가 마련한 고려대 마크가 들어간 피케 티셔츠, 호랑이 자수가 들어간 골프모자, 김동원 총장이 찬조한 120주년 기념 와인, 이동섭 교우회장이 찬조한 황남빵 등을 최다참가 학번상, 아차상,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하거나 참가자 전원에게 증정했으며 교가 제창으로 행사를 마쳤다.







골프대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2025년도 골프대회

성문안CC



경영대학 교우회 주최 2025년도 골프대회가 30도가 넘는 날씨 속에 6월 13일(금) 강원도 원주시 소재 성문안CC에서 개최됐다.

63학번부터 14학번까지 이동섭(경영89) 경영대 교우회장을 비롯하여 어윤대(경영63) 전 총장, 우상호(경영82) 고려대학교 기술지주(주) 대표이사, 현준우(경영85)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이사, 조영환(경영90) HDC리조트 대표이사, 나현승(경영91)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 신기성(체교94) 프로농구 해설위원 등 21개조 82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성문안CC는 HDC리조트(대표이사 조영환·경영90)에서 운영하는 18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산과 바위로 어우러진 경관과 그린, 페어웨이 전체에 식재된 양탄자 같은 벤투그라스, 난이도 높은 골프코스를 갖춰 서울경제 선정 '2024 한국 10

대 골프장' 수상한 바 있다. 이번 경영대 교우회 골프대회 행사 개최하기 며칠 전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대회를 치른 직후라 최상의 컨디션에서 라운딩할 수 있었다.

또한 등록데스크에서는 이전엔 시도한 적 없었던 멀리건(공식경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첫 샷에서 실수가 있을 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제도를 도입했다. 원하는 교우들에게 멀리건 이용권을 판매하여 라운딩에 여유와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73타를 친 남상영(경영85) 교우가 전체 메달리스트를, 79타를 친 김민정(경영95) 교우가 여자부 메달리스트를, 70.4점을 기록한 김도형(경영95) 교우가 신페리오 전체 1등을, 71.2점을 기록한 김다인(경영14) 교우가 여자부 신페리오 1등을 차지했다.





골프대회 시상

메 달 리 스 트	남상영(85)	73타
메 달 리 스 트 (여 자)	김민정(95)	79타
신 페 리 오 1 등	김도형(95)	70.4점
신 페 리 오 1 등 (여자)	김다인(14)	71.2점
최 다 참 가 학 번 상	89학번 (김상표, 김종택, 김평국, 송문섭, 서천호, 안종욱, 이강훈, 이동섭, 이상준, 이영진, 정종원, 최규만)	
젊 은 그 대 상	김재모(10), 김선후(11), 김태호(11), 최선우(11), 양지현(13), 김다인(14)	
포 에 버 상	어윤대(63), 안덕수(64), 강동식(64)	
개 근 상	강동식(64), 정창훈(85), 김종택(89), 오선근(90), 한경선(98), 양지혜(02)	
포 토 제 닉 상	IN2팀 : 이상준(89) 박성욱(95), 정재연(02), 이건호(07)	
팀 위 크 상	IN1팀 : 어윤대(63), 정창훈(85), 안종욱(89), 신기성(체교94)	
봉 사 상	황세진(07), 임관섭(13)	









7경매에 낙찰되신 분들

박진석(91)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선수단, 코칭스텝) 싸인 배트
김현수(93)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류현진) 싸인 배트
송승민(90)	농구 해설위원 신기성 싸인 농구공
김종택(89)	프로골퍼 김수지 선수 싸인 모자와 골프공 세트
정현승(98)	프로골퍼 박현경 선수 싸인 모자와 골프공 세트
정재연(02)	프로골퍼 박희영 선수 싸인 모자와 골프공 세트
이건호(07)	프로골퍼 박주영 선수 싸인 모자와 골프공 세트



찬조해 주신 분들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89)	항남빵 88개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78)	개교 120주년 와인 5병
김미숙 사범대 교우회장(지교81)	현금 50만원
경영79골프회	골프공 3box
박노준(82)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싸인 배트 2개
조명제(82)	순수자아 클렌징 패드 144개
정창훈(85)	현금 100만원
김종택(89)	현금 50만원
서천호(89)	현금 30만원
이강훈(89)	현금 50만원
이상준(89)	골프선수 친필 싸인 모자, 골프공 4세트
이영진(89)	현금 50만원
정종원(89)	순금(한돈) 기념품
조영환(89)	1인 라운드 이용권 4매, 오크밸리 리조트 숙박권 4매
경영대학(나현승 부학장 · 91)	개교 120주년 와인 5병, 전동 와인 오프너 5개
박진석(91)	골프공 4box
심현보(93)	골프공 3box
우희준(93)	현금 50만원
강지훈(94)	현금 30만원
신명석(95)	테라코타 방향제 200개, 천연비누 100개
신재욱(95)	상품권 30만원
이진호(96)	현금 30만원
한경선(98)	골프공 10box
김태훈(00)	골프티 1box
이승주(03)	현금 10만원
정진혁(04)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 1개, 퍼터 1개, 웨지 2개
신기성(체교94)	싸인 농구공 4개
이창훈(신소재18)	BLUP 수분틴트 100개



5시간의 라운딩을 마친 교우들은 만찬장에 모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안종욱(경영89) 교우는 우천으로 2024년 하반기 골프대회 행사가 취소된 아쉬움을 언급하며 2부 순서를 열었다.

이동섭 교우회장은 “고학번부터 젊은 교우까지 고르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다. 좋은 날씨에, 훌륭한 골프장에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리라 생각한다. 행사를 거듭할수록 자주 만나면서 가족같이 친밀하고 편안해지는 분위기라 경영대 교우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도 많은 교우들이 경품을 찬조했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교우들도 풍성한 행사를 위해 경품 찬조에 뜨겁게 동참했다. 지난 2024년 상반기 골프대회 행사처럼 이번에도 다양한 상으로 많은 교우들에게 고르게 시상했으며 수상자들은 수상 소감을 전하고 여러 경품을 획득했다.

또한 이번에 신설한 유명 스포츠 스타의 경품을 경매로 붙이는 ‘KU ACTION’에 교우들이 즐겁게 참여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모든 교우들이 기립하여 응원가를 열창하며 즐거웠던 순간을 마음에 간직할 채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 시작 전 판매된 멀리건 이용권 티켓대금 145만 원과 ‘KU ACTION’ 경매로 부처진 싸인 굿즈(배트, 골프모자, 골프공, 농구공) 수익금 236만 원은 고연전 뒤풀이 무료주점행사를 여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5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시	행 사 명	장 소
2월 20일(목) 18:00	상반기 상임이사회	파크루안(역삼)
5월 8일(목)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패컬티 하우스
5월 10일(토) 10:00	힐링트레킹	개운산
6월 13일(금) 11:00	상반기 골프대회	성문안CC
7월 17일(목) 18:00	하반기 상임이사회	파크루안(역삼)
9월 19일(금)~ 20일(토)	정기고연전	
9월 20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미정
9월 26일(금)	골프고연전	미정
10월 16일(목)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미정
10월 30일(목) 18:00	회장단 식사	미정
12월 4일(목) 18:30	제43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층)

■ 교우동정

**정지영(경영82)**

2025년 3월 18일
정지영 교우가
(사)한국백화점협회 회장
으로 선임됐다.

**한두희(경영83)**

2025년 3월 19일
한두희 교우가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강도태(무역86)**

2025년 5월 13일
강도태 교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곽희필(경영86)**

2025년 5월 16일
곽희필 교우가 ABL
생명보험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이정엽(경영89)**

2025년 3월 26일
이정엽 교우가
HMM 사내이사로
임명됐다.

**정규일(경영89)**

2025년 3월 31일
정규일 교우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에 선임됐다.

**오광욱(경영92)**

2025년 3월 24일
오광욱 교우가
신한라이프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황용식(경영92)**

2025년 3월 10일
황용식 교우가 국토교통부
장관상항공산업연구 발전
기여를 수상했다.

**허준녕(경영94)**

2025년 3월 31일
허준녕 교우가 휴젤
기타비상무이사에
선임됐다.

**정시영(경영95)**

2025년 4월 28일
정시영 교우가
PKF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박철민(경영96)**

2025년 3월 14일
박철민 교우가 휴젤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됐다.

**오경석(경영96)**

2025년 5월 29일
오경석 교우가
두나무 대표로
내정됐다.

**남화민(경영97)**

2025년 3월 26일
남화민 교우가
SM Life Design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장재문(경영04)**

2025년 3월 26일
장재문 교우가 카카오게임즈
전략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배지성(경영13)**

2025년 5월 12일
배지성 교우가 '2025 대한
마취약리학회 학술대회 자유
연제 발표'에서 우수 초록상을
수상했다.

■ 교수동정



이필상

이필상 전 총장이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상임고문 및
연구위원장 직을 맡았다.



정석우(경영80)

2025년 3월 26일
정석우 교수가
GS건설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김재욱(경영81)

2025년 3월 26일
김재욱 교수가
이마트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 故 박수완(경영79)** 2025년 7월 5일 아들 찬호 군
안태용(경영79) 2025년 7월 12일 아들 희문 군
지수용(경영79) 2025년 6월 1일 아들 승배 군
김규희(경영14) 2025년 5월 31일 본인 결혼
정기훈(경영19) 2025년 6월 8일 본인 결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 | | |
|------------------|--------------------|-----------------------------|------------------|
| 김진배(상54) | 2024년 6월 본인 별세 | 김신철(경영81) | 2025년 3월 26일 빙모상 |
| 홍성구(경영56) | 2025년 4월 25일 본인 별세 | 전상길(경영83) | 2025년 5월 17일 빙부상 |
| 이광조(상59) | 2025년 4월 18일 본인 별세 | 김용주(경영84) | 2025년 6월 13일 모친상 |
| 권천중(경영61) | 2025년 5월 25일 본인 별세 | 김희창(경영85) | 2025년 4월 28일 모친상 |
| 장승구(상61) | 2025년 5월 10일 본인 별세 | 박승국(경영89) | 2025년 6월 18일 빙부상 |
| 조승수(상62) | 2025년 4월 7일 본인 별세 | 황수진(경영89) | 2025년 3월 26일 빙모상 |
| 송재윤(경영70) | 2023년 1월 21일 본인 별세 | 강효요(경영94), 강호석(경영95) | 2025년 4월 10일 부친상 |
| | 2025년 4월 12일 모친상 | | |
| 안상기(경영70) | 2021년 4월 15일 본인 별세 | 이상범(경영94) | 2025년 5월 8일 모친상 |
| 김승길(경영74) | 2025년 5월 19일 본인 별세 | 김영태(경영99) | 2025년 4월 17일 모친상 |
| 한윤상(경영78) | 2025년 6월 15일 모친상 | | |



“Private Equity는 아트다”

UCK파트너스 대표 **신선화** 교우
경영대에서 사모펀드(PEF) 특별강연

신선화(경영95) 교우는 최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는 사모펀드의 구조와 운용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주요 고려사항까지 폭넓게 다루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서는 투자 시 유의해야 할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다양한 헷징 전략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설명이 이어졌다.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딜에서의 투자자 관점과 운용사 관점을 모두 조망함으로써 학생들이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대표 사례로는 공차의 턴어라운드 및 엑시트가 소개되었다. 신선화 교우는 공차의 한국 지사를 인수한 후 본사까지 인수

함으로써 전체 밸류 체인을 통합,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 전략을 설명했다. 이후 코로나19 직전 성공적으로 매각하며 약 6배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 사례는, 사모펀드 운용의 정석을 보여주는 사례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개 매수 거래로 주목받은 오스템 인수 사례도 함께 다뤄졌다. 이 딜을 통해 복잡한 구조화와 다수 이해관계자의 협의, 공시 요건과 자금 조달 전략 등 대형 거래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강의는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구성으로 학생들에게 사모펀드 산업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투자 및 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되었다.

고연전 100주년 필승 기원 승명호 교우회장 1억 원 쾌척

정기 고연전 100주년 필승 기원



승명호 교우회장과 운동부

고연전 100주년 필승을 기원하는 기부식이 5월 15일(목) 오후 4시 고려대학교 본관 4층 프레지던트챔버에서 열렸다. 이날 기부식에는 승명호 제35대 교우회장을 비롯, 김동원

총장, 모교 5개 운동부 감독 및 주장 선수, 한윤상 수석부 회장, 조훈희 체육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승명호 교우회장은 현재까지 20승 11무 20패를 기록하고 있는 정기 고연전의 역사에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쓰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필승 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2025년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간의 역사적인 라이벌전인 고연전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자, 5개 운동부(야구,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럭비)가 참여하는 정기 고연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교는 1925년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 간의 연식 정구 경기를 시작으로 고연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 5월 1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홈페이지 발채

“큰 꿈을 꾸는 젊은이들에게 더 넓은 광장을”

최오길 (주)인팩 회장, 자연계 중앙광장 건립에 2억 원 쾌척



최오길 교우

최오길(경영61) (주)인팩 회장이 모교에 2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고려대 자연계 캠퍼스에 조성될 중앙광장 건립에 쓰일 예정이다.

기부식은 5월 28일(수) 오후 4시 30분, 고려대 본관 총장실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최오길 회장을 비롯해 김동원 총장, 전재욱 대외협력처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오길 회장은 “청춘은 그 자체로 가능성이고, 광장은 그 가능성이 모이는 곳”이라며 “후배들이 더 넓고 자유롭게 꿈을 키워가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회장의 고려대 사랑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지난 23년간 누적 5억 원 이상을 기부해왔다. 2002년부터 2024년까지 경영대학 국제화 프로그램 및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현대자동차경영관 건립 당시에는 1억 원을 기부해 ‘인팩 스터디룸’을 조성했다. 또한 SK미래관 건립 사업에도 참여해 (주)인팩 명의로 ‘인팩 캐럴’을 설치하며 꾸준히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최오길 회장은 고려대 졸업 후 산업은행과 대신증권에 거쳐 1991년 인팩의 전신인 삼영케이블을 인수하며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 당시 68억 원에 불과했던 회사의 매출은 글로벌 관계사 포함 1조 원까지 성장했다. 인팩은 현재 친환경 자동차용 전력 전자 부품, 차세대 모터 액추에이터 등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중견기업으로, 미국, 인도, 중국, 멕시코, 폴란드, 베트남 등지에 10여 개의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최 회장은 ‘회사는 사람이고, 사람을 믿는 경영이 진짜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실천해왔다.

김동원 총장은 “최 회장의 기부는 단순한 후원이 아닌, 사람과 교육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라며 “그 뜻을 받들어 자연계 캠퍼스 중앙광장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2025년 5월 29일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채

“학교의 뿌리가 되는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학하길”

박중근 네오텍스 대표, 인문관 건립기금 7만 달러 기부



박중근 교수

박중근(무역74) 네오텍스 대표이사가 인문관 건립기금으로 미화 7만 달러(약 1억 200만 원)를 모교에 기부했다.

기부식은 5월 8일 본관 총장실에서 열렸으며, 박중근 대표를 비롯해 강석희 국제재단 이사장(농경기), 김용 남가주 교우회장(기계84) 등 기부자 측 관계자와 김동원 총장, 이희경 문과대학장, 전재욱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박중근 대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활동하는 한인

사업가로, 2000년 네오텍스를 설립해 한국산 섬유의 대미 수출 확대에 헌신해 왔다. 고려대 남가주교우회 48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LA 세계한인무역협회 제20대 수석부회장, 글로벌 마케터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2017년에는 제54회 무역의 날에 산업포장을 수훈했다. 박 대표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우로서 2010년부터 꾸준히 모교에 기부를 이어왔으며, 2022년에도 인문관 건립 기금으로 1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는 “4년 전 코로나 시기 학교에 방문했을 때 인문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았다”며 “돕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다. 학교의 뿌리가 되는 우리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박중근 교우님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이 대학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2025년 5월 9일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이용훈 인타임즈인 대표, 다문화 가정 장학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누적 기부액 4억에 달해



이용훈 교수

4월 18일 글로벌 교육 전문 기업 인타임즈인의 이용훈 대표(경영84)는 모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용훈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1984년에 입학해 경영대학원과 국제대학원에서 각각 국제경영 석사와 국제통상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글로벌 교육 기업인 인타임

즈인을 설립해, 지난 30년간 국내외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 또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도 힘써왔다.

이 대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위한 기부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이번 기부로 이용훈 대표의 누적 기부액은 총 4억 원에 달한다.

기부식은 지난 17일 고려대 본관에서 진행되어, 김동원 총장과 전재욱 대외협력처장, 박현숙 학생처장이 참석해 감사를 표했다. 행사에서 이용훈 대표는 “후배들이 고려대 교정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자리에서 “고려대학교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귀중한 도움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화답했으며, “이번 발전기금이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4월 18일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임영빈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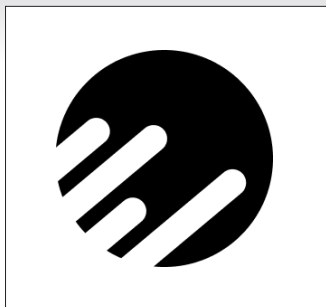
도은욱 대표

브이원씨

Interview

도은욱 대표(경영12)

임영빈 이사(경영10)



Q1. 교우님께서 운영중인 회사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도은욱 대표 : 저는 브이원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12학번 도은욱입니다. 저는 졸업 후 모건스탠리 홍콩 아시아 본사 M&A그룹에서 기업 인수·합병 자문과 가치평가 업무를 하다가 2019년에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브이원씨는 2021년 12월에 설립했고 2022년 3월부터 클로브라는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벤처대출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중소기업이 79만 개가 있는데, 이들이 창출하는 매출액은 연간 2,200조 원이 넘는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행에서 신



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은행소외집단으로, VC에서 투자를 받거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더 적합한 자금 조달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영빈 이사 : 저는 브이원씨 CRO를 맡고 있는 10학번 임영빈입니다. 저는 모건스탠리 서울오피스에서 M&A와 IPO를 자문하는 업무를 하다가 옆에 있는 도은욱 대표의 제안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동참하게 됐습니다.

Q2.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임영빈 이사 : 저희는 각각 46대, 47대 경영대 학생회 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46대에서 47대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만났는데 서로 잘 맞아서 빠르게 친해졌어요. 당시부터 저희 공통 관심사는 금융이었는데, 학생회 이후로 같이 금융 스터디 그룹을 하다가 더 깊이 공부하고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IBC라는 기업금융학회를 창립했고, 졸업후에는 모건스탠리에도 같이 입사했죠. 사실 처음 퇴사하고서는 금융 사업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같이 금융 커리어를 계속 이어 나가는 중입니다.

Q3.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를 퇴사하고 어떻게 창업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됐나요?

도은욱 대표 : 원래 저는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하는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투자은행에 들어가서 업무하다 보니 처음엔 대기업 위주로 자문하는 일을 하다가 조금씩 시대가 변하면서 스타트업을 자문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고, 중간 단계를 모두 건너뛰고 창업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만큼 좋은 창업 환경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요.

임영빈 이사 : 모건스탠리 같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융에 대한 열정도 있겠지만, 쉽게 해보지 못하는 유익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적은 인원을 채용하는 문이 좁은 회사였고 그렇게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과 업무하다 보면 유니크한 경험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막상 들어가서 일해보니 일은 재미있었지만, 임팩트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서 누군가를 도우려면 희소한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때 창업이란 키워드가 떠올랐고 때마침 도은욱 대표가 창업을 제안했어요. 저에게는 공동창업자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감한 의사결정 할 줄도 없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Q4. 초기에는 레베뉴마켓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클로브로 브랜드와 서비스 구조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은욱 대표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매출원가율은 약 70%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원가가 수반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00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70원이 필요한데, 다음달에 200원의 매출을 내려고 하면 즉, 성장하려고

하면 70원의 추가적인 원가가 필요한거죠. 이때 내부 자금이 부족하니깐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때마다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지분 희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기관의 보증서도 매번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 시장을 조사하던 중 벤처대출 시장을 발견했고, 그중 매출채권 유동화를 전산화, 플랫폼화한 방식을 사업 모델로 삼게 되었습니다.

레베뉴마켓은 중소기업의 장래매출채권을 양수하여, 중소기업이 미래에 발생시킬 매출을 자금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들어, 매달 100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6개월 동안의 매출은 600이 되고, 그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저희가 580에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미래의 매출을 현재 시점에서 현금화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클로브는 중소기업이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관리 SaaS입니다. 클로브가 출시된 이후, 레베뉴마켓은 클로브 금융이라는 하위 서비스로 통합되었습니다.

Q5. 클로브가 특별한 점을 알려주세요.

도은욱 대표 : 일반적으로 기업은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서면 회계팀을 구성하고, 더 성장하면 재무팀을 만들며, 상장 준비하거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시점에는 자금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금팀은 자금 수지와 자금 계획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총괄 관리합니다. 자금팀을 꾸리기 전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는 벤처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출하는 역량을 쌓아왔고, 이러한 고객의 페인포인트를 포착하여 현금흐름을 가공 알고리즘을 서비스화하여 고객들께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중소기업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현금흐름을 파악하도록 클로브라는 자금관리 SaaS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로브를 통해 매달 수백개의 중소기업들을 획득하고 있고, 이들 중 대출이 필요한 기업에 클로브 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6. 모든 스타트업 기업이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요?

임영빈 이사 : 클로브 금융은 특정 매출 규모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출 채권 유동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야만 실제 자금 제공이 가능합니다. 유동화 금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연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자금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로브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이 데이터를 연동하기만 하면, 대출 한도와 할인율 등을 자동 분석해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금융권처럼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실사 절차 없이도 한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매출 1,000억 원대의 기업들도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Q7.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도은욱 대표 : 사업을 요리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님이 좋아할만한 요리를 가정하고, 그에 맞는 재료와 조리법을 구성해 실제로 반응을 확인해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즉, 어떤 시장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성공 여부나 성공 시점을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버틸 수 있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안에서 함께 버틸 수 있는 팀이 있다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임영빈 이사 : 운영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결국 사람입니다. 기업은 사람이 모여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이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며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인재와 함께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는 것이 어렵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업무 체계와 조직 문화를 설계하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적절한 리소스를 적시에 투입하는 운영 역량 또한 필수적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8.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고 싶으신가요?

도은욱 대표 : 저희는 2019년에 퇴사하고 2년 동안 헤매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아이템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할만한 아이템을 찾아내는 게 저희 시작이었죠. 해외에서 성공한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섯 번이나 사업 아이템을 피벗하게 됐어요. 돌아켜보면 당시 구상했던 사업모델 중 일부는 지금 해도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생각했던 아이템들은 모두 앞으로 수십년 동안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실행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결국 우리는 단순히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미션이나 의미를 가져야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아시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은 이론적으로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인구 증가와 천연자원 확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필요

하며, 특히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금조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빠르고 간편한 중소기업 금융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갑에서 꺼내쓰는 것처럼 자금을 편하게 조달하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들은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Q9.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영빈 이사 : 창업을 하면 예상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며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어려움까지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아이템이 정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나만의 미션을 바탕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에 아직은 완벽히 답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 가야할 길을 알겠고 각오가 되어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은 오고 내일이 있다



春崗 황인강
상61·수필가

30여 년 전인 것 같다. 현역으로 있을 때, 스피치를 연마하는 한국언어문화원을 다닌 적이 있다. 당시의 관련 앨범에 눈에 띄는 A4 용지의 파워스피치 전문과정 자료가 발견됐다. 귀중한 자료이기에 앨범에 끼워 넣었던 것 같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스피치 실습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고려대학 김상협 총장의 연설문이다.

그분은 1970.10 ~ 75.04 재임으로 1977.08 ~ 82.06 까지 역임한 8대 총장이시다. 그 당시의 강압적인 독재가 횡행하던 때였다. 감동적인 연설문이어서 스피치 교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1971년 10월 16일은 마(魔)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시대 대학생들의 반정부 반체제 시위가 극심하여 대통령비상조치명령으로 서울지역에 위수령衛戍令이 선포됐다. 고려대를 포함하여 시내 각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점령 주둔하게 됐다. 많은 학생들이 체포되고 일부는 군입대로 학교를 떠났다. 21명이 당국의 학사에 개입하여 제적을 당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 사태를 당한 학교 측은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직원들이 허탈과 비통 속에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총장은 김상협 총장님이였다. 점령했던 군대가 한 달 만에 철수한 후, 총장은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에게 비감어린 담화문을 발표했다.

차마 볼 수 없고 말로는 옮길 수 없는 그 비참한 광경 속에서 불시에 당한 곤욕에 도저히 망각의 미덕을 발휘할 수 없어 총장으로서 절망스러웠던 광경을 호소문형식으로 발표했다.

“하늘을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차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땅을 치고 울어봅시다. 차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목을 빼고 통곡해 봅시다. 차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겪은 슬픔과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를 탄식하는 절규였다. 민간 주체의 사학으로 일관하여 온 고려대학교가 이제 부끄럽게도 만신창이 반신불수의 몸으로 퇴화하고 말았다는 위기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온 국민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모두의 가슴을 슬프고 아프게 했다. 본교의 역대 창설자이신 ‘이용익 선생, 손병희 선생, 김성수 선생’ 등을 거명하며 건국보육의 일념으로 발전해온 대학이 상처받은 명예에 죄스러움을 학교책임자로서 용서를 구하는 예를 기술하기도 했다.

‘그해 10월, 가을은 즐거운 저장의 계절이 아닌, 무서운 소진의 계절이 되고 말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실토를 했다. ‘대학 본연의 거목 잎이 떨어

오늘부터
기대되는
내일

“영광과 치욕, 긍정과 부정, 승리와 패배, 전진과 후퇴, 정상과 탈선, 환희와 비통이 반복하며 발전해왔다”

미래의 역사를 굳게 믿고 현재의 곤경을 참고 견디어 나가는 용기와 아울러 자존과 자애를 잃지 말아주기 바란다

지고, 가지는 부러지고 뿌리도 크게 상하였고 앞길 이 참으로 암담하다’고 탄식했다. 그러나 불사조와 같은 고대가족에게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희망을 폈다. 다시 새 뿌리를 치게 하고 새 가지를 뻗게 하고 새잎을 돋게 하고 새 꽃을 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끈질긴 기사회생起死回生の 생명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고 그날의 내일도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설파했다.

고려대학교는 두들겨 맞을 때는 땀집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서 이왕 맞을 바에야 ‘어설프게 맞지 말고 사정없이 맞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역설적인 말을 했을 정도다. 2차 대전 후 철저히 두들겨 맞은 독일민족을 볼 때 ‘끈질긴 재생이 있었고 줄기찬 성장이 있지 않았나’고 말한다. 한때 우리의 공간 상실, 캠퍼스를 잃었지만 상심하지 말고 앞날에 있을 ‘새 역사 창조를 위해 힘차게 분발하자’는 소리를 높여 외치셨다. 총장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고백하면서 역사의 신만은 굳게 믿는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씀했다.

인류 역사에는 “영광과 치욕, 긍정과 부정, 승리와 패배, 전진과 후퇴, 정상과 탈선, 환희와 비통이 반복하며 발전해왔다”고 되뇌이며 미래를 전망했다. 학생들에게 다함께 ‘미래의 역사를 굳게

믿고 현재의 곤경을 참고 견디어 나가는 용기와 아울러 자존과 자애를 잃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의 전통에는 상부상조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왔다고 자랑했다. 불구대천의 적대관계에 있었던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 풍랑을 맞아 서로 돕고 의지해서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오월동주吳越同舟 고사를 인용했다. 서로 한마음으로 뭉치자고 호소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날이 세계평화가 회복되던 날이었다고 하면서, 고려대학이 그해 11월 11일부터 ‘재출발 재출항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의 앞길에 순풍이 함께 할 것’이라고 기원을 다짐했다. 이제는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씻고 맑은 하늘을 높이 쳐다보면서 웃는 얼굴로 재출항의 돛을 높게 올려 힘차게 치고 나가자”고 역설했다. 폭력과 힘의 압박에 억눌리어 명령하는 대로 자유를 잃은 학생들과 학부모 졸업생이 당한 심적 고통을 털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자고 재차 소리 높여 외쳤다.

이제 불타는 야망과 희망을 잃지 않은 새로운 다짐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이 정의와 공의의 소리로 승화되어서 약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난국을 슬기롭게 수습한 총장님을 후배로서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얼마나 복된 후배들인가.

막 내



박 찬 성
경 영 68 · 수필가

막내란 모태로부터 이 세상을 구경하러 막차를 타고 온 손님이다. 하마터면 이 좋은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를 뻔했던 행운아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와 함께 막내가 희귀 종족이 되어 가는 시대를 맞고 있다. 신혼 가정 중에 1자녀의 세대가 60%를 넘어서서 유아독존 형의 외로운 인간군이 대세를 차지하게 되면서다. 일찍이 집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자라면서 사회적 인간관계의 다이나믹스를 학습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집안의 내리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대가족에서의 막내라면 대체로 양순하면서 또한 이기적이고 의존성이 강한 면도 있을 것이다. 남자 일색의 형제만 많은 집안이라면 일주 어려서부터 군대 내무 생활을 방불케 하는 위계질서에 길들여져 눈치 빠르고 고분고분한 막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층층시하에 억눌린 채 살아왔다는 자의식에 빠진 막내들도 없지 않을진대, 이런 경우 다소 반골적인 기질을 나타내거나 사회생활에서 보상 심리로 남을 압도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기이한 막내도 있다. 그리스 신화에 손에 낫을 든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크로노스라는 인물이다. 그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의 사이에 태어난 타이탄 신족 6남 6여 중 막내아들이다. 우라노스는 자식들이 태어나자 땅속, 즉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자궁 속에 가두어 버린다. 강한 모성애를 지닌 가이아는 이런 우라노스의

만행에 복수심을 불태운다. 가이아는 자식들에게 불멸의 금속으로 만든 낫을 보여주며 우라노스에게 반기를 들 자를 찾았지만 아버지의 위세에 눌린 자식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때 용기를 내어 선뜻 나선 자가 바로 막내 크로노스였다. 그는 밤이 되자 어머니의 침상으로 접근하는 아버지의 그 부위를 낫으로 휘둘러 거세하고 최고의 신으로 등극한다.

이 대목이 떠오를 때마다 슬며시 고개를 쳐드는 의문이 있었다. 역모의 주동자가 왜 장남인 오케아노스가 아니라 하필 막내인 크로노스였던 걸까? 형들의 그늘 밑에서 자란 무매칠남 집안의 막내에겐 야릇한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는데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실의 재발견이었다. 즉 어머니에게 막내라는 존재는 자신의 몸에서 떨어뜨린 마지막 살점이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살점은 온갖 태초의 세포가 차곡차곡 체화된, 즉 모체의 업데이트된 최신 DNA 정보를 오롯이 담지하고 있기 때문일 거란 뜻이다. 그러므로 크로노스는 다섯 명의 형들보다 형질적으로만이 아니라 기질적으로도 가이아와 동질성이 설손 한층 강화된 아바타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모자 간에 사전 밀담을 통해 거사 계획에 의기투합했을 가능성을 점쳐 보는 일은 무리한 추론이 아닐 것이다.

참으로 엽기적인 신화이다. 우리가 부자유친과 장유유서를 가르칠 때 그리스인들은 자식들에게



이런 신화를 들려주면서 교육했다고 한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답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저자 김헌 교수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기성세대의 모순과 권위에 겁먹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신세대만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갈 수 있다는 그리스인들의 지혜가 담긴 메타포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백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 한 막내가 있었다. 한때는 얹어 놓은 이쁜 밥주발같이 봉긋이 솟은 가슴으로 큰 자식을 보듬을 때도 있었지만 마른 젖줄에 늘어진 젖가슴을 물고 있는 막내이를 지긋이 내려다보시던 엄마, 당신의 눈가가 보송보송했을까 없다. 부족한 젖은 애툫한 정으로 그득 채우셨으리라. 어느 한겨울 밤마실 갔다가 막내를 업고 귀가하던 길, 대문 밖 소실땃 별채에 등불이 비치는 창문에 흘깃 눈길을 주고 발길을 돌리던 어머니는 밤새 뒤척이셨다.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도록 가슴으로 파고드는 철부지를 끝안고 장리쌀 걱정, 서울 유학 간 큰아들로부터 면면이 이름을 부르며 무슨 뜻인지도 모를 주문 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시곤 했다. 어려서는 당신과의 눈맞춤과 독백으로, 커서는 서신으로 전해진 어머니의 비화는 막내의 머릿속에 어슴푸레한 기억으로 저장되고 있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둘러보지만 정작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찍은 사진이다. 카이로스도 그렇게 찍힌 한 장의 사진이었을 게다. 책을 보다가 우연히 작가가 막내라는 기미가 보이면 팬스레 호기심이 발동하여 작품 구석구석 막내의

흔적을 찾기에 분주하다. 그래서 만난 막내인 수필가들만 해도 두 손을 꼽을 정도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셋만 꼽아 보자면, 영국에서 수필Essay을 독립적인 문학 장르화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찰스 램은 불우한 가정의 7남매 중의 막내요, 동서양의 지혜를 꿰뚫은 휴머니스트에서 만년에 크리스천으로 귀의한 중국의 린위탕林語堂은 9남매 중의 막내요, 연전에 작고한 한국의 지성 이어령은 12남매 중 막내였다.

역시 막내 작가들의 글에 빠지지 않는 노래는 어머니였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함께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막내의 가슴 속에 가장 오래도록 살아 계시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어령 선생의 말처럼 평생 “현존하는 거대한 부재”로 늘 함께한다. 그들의 맘속 깊이 침전해 있던, 어머니가 눈으로 입으로 들려준 이야기는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 언어의 옷을 입고 작품의 곳곳에 모정의 파토스Pathos로 우러나는 것이 아닐까.

막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복수의 형제 관계를 함의한다. 맏이 둘째 막내, 이렇게 세 자녀가 웅기종기 둘러앉은 모습을 만나기 어려운 요즈음이다. 이제 우리는 막내를 태운 열차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 주는 사회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까닭이다. 그래서 정감 있는 ‘막내’라는 낱말이 사라지지 않길 희망한다. 막내라는 종족이 전설의 인물이 되지 않길 바라 마지않는다.

조지훈의 ‘지조론’을 다시 읽으며



이경순

경영61·계간<글의 세계> 발행/편집인

조지훈의 교훈적 중수필은 1960년 3월 「새벽」지에 발표되었고 1962년 같은 표제의 수필집이 발행되었습니다. <지조론>은 1950년대 자유당 말기의 극도로 혼란하고 부패한 정치 현실 속에서 과거의 친일파들이 과거에 대한 뉘우침 없이 정치 일선에서 행세하고, 정치 지도자들마저 어떤 신념이나 지조도 없이 시대 상황에 따라 변절을 일삼는 세태를 냉철한 지성으로 비판한 글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지조를 예시와 속담, 일화 등을 통해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1950년대의 부정과 부패로 일관한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나아가 그 정권에 빌붙어 권세를 누리는 이들을 단죄함으로써 민족사의 새로운 자각과 지평을 열어 나가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지훈은 “지조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를 살피려 한다”고 글을 열며,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名利)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一朝)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였는가?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지조 있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곤고(困苦)를 이해할 뿐 아니라 안심하고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조 없는 지도자, 배신하는 변절자들을 개탄(慨歎)하고 연민(憐憫)하며 그와 같은 변절의 위기 직전에 있는 인사들에게 경성(驚醒)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차들에 바람이 들면 백 리를 날아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거니와, 늦바람이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아직 지조를 깨뜨린 적이 없는 이는 만년(晩年)을 더욱 힘쓸 것이니 사람이란 늙으면 더러워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도도히 밀려오는 망국(亡國)의 탁류(濁流), 이 금력과 권력, 사악 앞에 목숨으로써 방파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지조의 함성을 높이 외치라. 그 지성 앞에는 사나운 물결도 물러서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천하의 대세가 바른 것을 향하여 다가오는 때에 변절이란 무슨 어처구니없는 말인가.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를 위한 36년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은 가졌었다.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권력에 뒤늦게 팔리는 행색은 딱하기 짝이 없다. 배고프고 욕된 것을 조금 더 참으라, 그보다 더한 욕이 변절 뒤에 기다리고 있다.”

“변절자에게도 양심은 있다. 야당에서 권력 에로 팔린 뒤 거드럭거리다 이내 실세(失勢)한 사람도 있고, 갓 들어가서 애교를 떠는 축도 있다. 그들은 대개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표면으로 성명은 버젓하나 뜻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 얼굴에는 수치의 감정이 역연하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란 것이다. 구복(口腹)과 명리를 위한 변절은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 좋다. 자기변명은 도리어 자기를 꺾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핑계는 있다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왜 아기를 배게 뒀느냐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창피하지 않은가.”

“양가(良家)의 부녀가 놀아나고, 학자 문인까지 지조를 헌신짝같이 아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으니 변절하는 정치가들도 우리쯤이야 괜찮다고 자위할지 모른다. 그러나 역시 지조는 어느 때나 선비의, 교양인의, 지도자의 생명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조를 잃고 변절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자임(自任)하는 바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조론’에서 특히 내가 천착(穿鑿)하는 단어는 확집(確執)이며 본류는 집(執)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생소한 단어인 ‘확집’은 자신의 주장이나 뜻을 굳게 지켜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집의 고풍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집(執)은 흥미로운 한자입니다. 본래의 뜻은 잡다(hold), 붙잡다(grab) 이지만,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 심오한 뜻으로 탈바꿈합니다. 그중에는 권력자의 지위·처신과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우선 권력을 잡는 것을 집권(執權)이라고 하고 집권하면 정사를 맡아보게 됩니다. 이를 집무(執務)라고 하고 권력자가 집무하며 의사 결정을 내리면 집행(執行)이 이루어집니다. 권력자의 의지는 집행으로 실현됩니다. 집(執)은 권력자가 경계해야 할 부덕한 심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일심 견지하면 집념(執念)이지만, 집요(執拗)함이 정도가 지나쳐 균형 감각을 잃으면 집착(執着)이 됩니다. 그저 자기주장이 강한 정도면 고집이지만, 웅졸하고 시야가 좁아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아집(我執)이 됩니다. 확집이 때론 부정적인 뜻으로 통해 자기주장이 강해 타협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을 확집이라고 합니다.

권력자의 집착과 아집은 나라에 화(禍)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갑골문에 보이는 집(執)의 원형은 쇠고랑을 찬 채 끌어앉은 죄인의 모습이라고 한답니다. 죄인을 꼼짝 못 하게 붙잡는(arrest) 것이 집(執)의 본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권력자가 죄인의 처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아니 죄인을 넘어 권력자(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민주화의 미명(美名)으로 쫓겨나거나 피살되거나 감옥행이었습니다.

참으로 괴상한 나라입니다. 북한 사전에서 ‘민주화’를 검색하면, ‘주체사상 전파에 방해가 되는 미국, 남한 정부, 자본가를 까부수기 위한 투쟁’이 곧 민주화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민주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업적은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본다면 집(執)이야말로 권력자를 훈계하는 한자가 아닌가 합니다. 권력자가 집(執)의 뜻만 잘 새겨도 나라의 우환이 줄어든 것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 '나의 부모님', 1977,
캔버스에 유채, 182.9 x 182.9cm /
David Hockney, 'My Parents', 1977,
Oil on Canvas, 182.9 x 182.9cm
©David Hockney, Collection Tate,
U.K. ©Tate, London 2019

삶의 애착

김진하
상66·시인

숨 가쁘게 달려오며
힘들게 살아 온 세상.

한때는
이 세상을 원망한 적도 있지만

팔십이 다 된 지금도
더 살고 싶은 욕망이 굴뚝 같구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지 않는가?
술도 한 잔 더 하고싶고

담배도 한 대 더 태우고싶고
연애도 한 번 더 하고싶네.

세월엔 장사없다
아득한 옛날이 그리구나.

몸은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는데도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구나.

삶에 대한 애착이
갈수록 더 생기니 이 어인 일인고 !!



56 회장 이연상 / 부회장 변동수

막수회 (56동기회 월례회장 : 이연상) ●●●

123호 호상지에 소식 전한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막수회 모임을 가졌다. 지난 2월까지 3번에 걸쳐 모인 인원이 연인원 16명밖에 안됐는데 이번 3개월에는 3월 7명, 4월과 5월에 각 8명 도합 연인원 23명이 참석해서 집행부로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한다.

전과 다름없이 이번 3개월에도 이남주, 최종해 동기가 모임비용을 찬조해주어 기금이 전 분기에 비하여 늘어나는 고무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종해 교우는 그동안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회복되어 모처럼 참석하고도 참석할 때마다 찬조금을 쾌척해주어 회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항상 반복되는 인사지만 회식비 찬조를 해주는 모든 동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그동안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Rolling stone'에 대한 화제로 참석 회원들에게 즐거움을 주던 홍성구 동기가 2020년 1월 이래 참석을 못하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25일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족들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조문을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모두 홍 동기의 명복을 빌어주기 바란다.

오는 6월 모임은 25일에 있는데 그동안 건강관리 잘하고 반가운 얼굴로 동기간 우의 증진의 장에 많이 참여해주기 바란다.



막수회

61 회장대행 · 총무 이채영

동기회 봄맞이 모임 개최 ●●●

2025년 5월 16일 12시 7호선 논현역 인근 '삼양만나(전 취영루)'에서 39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봄맞이 모임을 가졌다. 5개월 만에 만나는 동기들은 오랜만에 서로의 근황을 나누느라 자리를 옮겨가며 이야기꽃을 피우기에 바빴다. 이날 수필가인 황인강 회원이 용해원과 류인순 시인의 시를 낭독하며 분위기를 북돋아 주었다. 동기들의 고령화로 몸이 불편한 회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모임 참석자들이 줄어들고 있어, 100세 시대를 맞는 핵심 징검다리인 '85세 고개'를 무난히 넘기 위한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이경순 회장이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퇴임함에 따라 후임 회장이 정해질 때까지 당분간 이채영 총무가 대행 예정이며, 당일 오찬비는 동기회 기금에서 지불했다.

· 참석자 : 강승열, 김길남, 김병수, 김성희, 김 실, 김승헌, 김윤장, 김지균, 김홍곤, 라석균, 박광근, 박광옥, 박무용, 박인우, 성규진, 성영일, 이근태, 이강문, 이복성, 원용계, 윤종완, 이준웅, 이채영, 조 경, 조일규, 전병원, 전준옥, 정광수, 정의철, 채갑병, 채규학, 최창규, 최 섭, 황인강, 홍기정, 김군자, 박진자, 박청자, 최민자



5월맞이 전체모임



초암회(서초동 모임) ●●●

서초동 지역에 거주하는 동기들이 부부 동반 모임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회원들만으로 매년 회장을 돌아가며 맡으며 연초에 연회비를 걷어 홀수달 화요일 지하철 3호선, 9호선의 양재역 역 인근 '산들해'에서 홀수달 셋째 화요일에 금년도 회장 정의철 외에 15명이 만나고 있으며, 3월 18일, 5월 21일 모임에 이어 다음 모임은 7월 15일에 같은 장소에서 가질 예정이다.



초암회

도암회(여의도 모임) ●●●

여의도에 직장을 가졌던 동기들이 셋째 금요일 63빌딩 옆 리버타워 2층 '하반'에서 13시에 오찬을 함께하며 매월 만남을 갖는 유일한 소모임이다. 회원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주하여 회원들이 줄어들었으나, 김 실 회장의 열정으로 항상 11명 내외가 모여 노후생활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친밀감이 돈독하다. 당일 오찬비는 회원들이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 4월 17일에도 만남을 가졌으며 다음 모임은 6월 19일 갖기로 했다. 한편 기독교 신자인 손윤기 회원은 스페인 산티아고(성자의 길) 순례길 걷기에 도전하여 35일간의 일정을 모두 완주하고 산티아고에 도착했다고 6월 6일 알려왔다. 노익장의 기개에 박수를 보낸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도전한 손윤기 동기

삼목회(걷기 모임) ●●●

등산모임에서 걷기모임으로 변경한 삼목회는 매월 셋째 목요일 만나 서울인근 둘레길을 걷고 있다. 3월 19일 모임 창립자인 옛골에서 만나 '청계산 어둔골'을 걸었다. 이날 회원들의 건강관계로 갈수록 참석자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골프모임에 이어 모임의 해산을 심각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회원들의 지방 이주와 노인성 질환으로 걷기가 힘든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박인우 회장 외에 김순구, 박광옥, 박진자, 이건태, 이경순, 이근창, 이원태, 이채영, 정홍진, 최민자, 하준기 등의 회원 중 매월 10명 이내의 회원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목회

이월회(양재동 모임) ●●●

골프모임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아범회가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역사역, 선릉역 등으로 옮겨 다니다가, 현재 짝수달 둘째 월요일 낮 12시 30분 양재역 1번출구 앞 '왕삼돈'에서 만나고 있으며 4월 14일에 이어 6월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성영



이월회

일 회장 외에 김윤장, 김순구, 김근도, 김승현, 김우찬, 김지균, 박인우, 왕규철, 이병우, 이복성, 이창웅, 이채영, 이춘원, 채갑병 등 14 명의 회원들 중 11명 내외가 참석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오찬 비용은 회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다.

광암회(강남지역 모임) ●●●

졸업 후 종로와 중구에 있던 직장에 근무하던 동기들이 광화문 인근과 강남역 인근 식당에서 만남을 이어오다가, 현재 홀수달 둘째 화요일 12시 교대역 11번출구 앞 '참배나무골'에서 인삼주를 반주 삼아 훈제오리를 먹으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3월 14일에 15명의 회원이 모여 그간의 근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당일 오찬은 오랜만에 참석한 김승유 회원이 부담하였다. 이채영 회장 외에 김승유, 김근도, 김길남, 김병수, 김순구, 김승현, 김우찬, 김윤장, 민병직, 박광옥, 박수죽, 박인우, 성영일, 양재광, 왕규철, 이근태, 이근창, 이경순, 이병우, 이준웅, 이창웅, 장경작, 정시균, 정홍진, 채갑병, 최 섭, 최창규, 하준기, 황인강 등의 회원 중 매회 15명 내외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다. 이채영 회장이 한달살이로 6월 2일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7월 모임은 갖지 않기로 했다.



광암회

청춘대학(실버학교) ●●●

정해진 날자 없이 매월 모임에서 다음 모임 날을 정하여 만나, 좋아하는 음식을 즐긴 후,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근황들을 나누며, 은퇴 후의 행복을 추구하며 국내외 명승지 여행을 즐기고 있는 모임이다. 3월 24일, 4월 28일 강남의 '고향마을', '통영마을' 등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김순구, 박인우, 박진자, 이원태, 오영희, 이채영, 최민자 등 7명이 참석하여 서로의 건강과 여행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 4월 2일~4월 7일에는 벚꽃이 만발한 일본 도야마의 아담한 성과 호수를 둘러 보고, 벚꽃 터널 아래에서 마츠가와와 유람선을 타며 꽃놀이를 즐기고, 오미조 수산시장내 맛집을 찾아 입을 호강시켰다. 또한 기차로 이동하여 일본 3대 영산으로 꼽히는 3,015m 높이의 다테야마산을 주봉으로 하는 나가노현에서 도야마현으로 이어지는 3,000m높이의 산악지대로 이어진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는 전체구간이 약 90km에 달한다. 폭설로 인한 교통통제로 입구까지만 기차로 가보는걸로 만족해야 했다. 다시 기차로 가나자와로 이동하여 일본 3대 성에 속하는 가나자와성과 세계 4대 정원인 '겐로쿠엔'을 돌아보았다. 11.4헥타르에 달하는 넓이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정원은 중세 이시카와와 도야마 지방 영주 마에다 가문이 대를 이어 가꾸고 있다. 5월 23일 '통영마을'모임에서는 10월 20일~25일 일본 아오모리의 혼슈 북부와 홋카이도 지역을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청춘대학(도야마성 앞에서)



62 회장 남영현 / 총무 한상욱 / 감사 송기현

62동기회 봄맞이 동기모임 ●●●

경영대학 62학번 동기는 예년과 같이 동기회 봄잔치를 가졌다. 5월 15일 오후 1시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청계산 산행은 중단하고 지하철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부근식당에 회원 모두 80이 넘는 노구임에도 사모님들과 같이 32명이 모였다. 남영현 회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한우로 점심을 먹었다. 그동안 말수화, 요산화, 기우회를 통해 동기회원 상호 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나 동기회원 전체모임은 7개월 만에 행사를 가져 서로간의 건강과 근황으로 환담을 나누며 즐거운 하루를 마감하였다.



봄맞이 동기모임

64 회장 박재진 / 사무총장 이석훈 / 감사 김인철

3월 등산회 모임 (등산회장 : 권영기, 등산대장 : 고병선) ●●●

- 일시 : 2025년 3월 29일(토)
- 참가자 : 강동식, 권영기, (김귀분), 고병선, 고충효, 김동훈,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안덕수, 유성준, 이석훈, 이용규, 최양섭, 최종한, 홍현목(16명), 김윤희, 박태웅, 이강훈, 이경희, 지동직, 현봉길(식당참석 6명) 총 22명 참가
- 코스 : 3호선 남부터미널 5번출구 집결 - 우면산 둘레길 - 방배동 '제5구역' 식당
- 등산대장에 고병선, 홍보대장에 박채길, 박장대장에 김동훈 추대
- 박채길 식사비용 359,000원(장모님 조의에 대한 감사로), 이강훈 10만 원 찬조



3월 등산회 모임

3월 백수회 모임 (백수회장 : 지동직, 등산대장 : 유명식, 이용규) ●●●

- 일시 : 2025년 3월 22일(토)
- 참가자 : 김광수, 박명익, 박채길, 유명식,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최중욱
- 코스 : 노들역 4번출구 집결 - 동작충효길 걷기
- 박채길 식사비용(장모님 조의에 대한 감사로), 함초소금 1병씩 찬조



3월 등산회 모임

4월 등산회 모임 ●●●

- 일시 : 2025년 4월 26일(토)
- 참가자 : 강동식, 고병선, 고충효, 권영기, (김귀분), 김광수, 김동훈, 박명익, 박채길, 송병열, 유성준, 이석훈, 이정규, 정원교, 홍현목(15명), 김덕환, 김상규, 김윤희, 김인철, 신방호, 이강훈, 지동직(식당 참석 7명) 총 22명 참가
- 코스 : 3호선 남부터미널 5번출구 집결 - 우면산 둘레길 - 방배동 '제5구역' 식당
- 등산모임에 처음 참가한 동기 : 신방호, 김인철



4월 등산회 모임

5월 등산회 모임 ●●●

- 일시 : 2025년 5월 31일(토)
- 코스 : 왕십리역 집결 - 양수리 식당에서 중식 - 북한강 철길 횡단 - 운길산 물의 정원에서 맥주파티 및 담소 - 운길산역에서 귀경
- 참가자 : 강동식, 고병선, 고충효, 권영기, 김귀분, 김덕명, 김덕환, 김상규, 박명익, 박채길, 박태웅, 신준철, 안덕수, 유성준, 이석훈, 이경희, 최양섭, 최종한(18명) 이강훈, 이경희, 조재복, 정원교, 강용민, 지동직, 최종욱(양수역 참가자 7명) 총 25명
- 김덕명, 신준철, 유성준, 이용규, 최양섭 70만 원 찬조



5월 등산회 모임

6월 백수회 모임 ●●●

- 일시 : 2025년 6월 4일(수)
- 코스 : 광교중앙역 1번출구 집결 - 영흥수목원
- 참가자 : 김광수, 신준철, 안덕수,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최종욱, 홍현목(10명)
- 안덕수 식사비용 찬조



6월 백수회 모임

고려대학교 64학번 입학 동기 모임 ●●●

-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 참가자 : 강동식, 고병선, 권영기, 김광수, 박채길, 신준철, 안덕수, 유명식, 이석훈, 이정규, 최종욱(11명)

이날 입학 동기들은 무려 42명이 모여서 아직 끝나지 않은 장미 축제를 만끽하면서 가볍게 막걸리와 가져온 각종 차들을 함께 마시고 끝없는 대화를 이어갔으며 '우리 만나니 얼마나 기쁘냐?'를 노래하는 기분이었다. 점심은 각종 산채 나물과 곁들인 돼지고기 김



64학번 동기모임



치찌개와 닭볶음탕의 푸짐한 상을 먹어도 끝나지 않은 요리를 남겨둔 채 일어나야 했었다. 하늘은 구름에 가려 건기에 좋았고 봄날 이 지나가는 공원에서 흥학 구경이며 별의별 꽃 무리를 감상하면서 한나절을 보냈다. 경영학과 동기들의 참석은 경제학과와 동수인 11명이었다.

66 회장 김용년 / 총무 정 발

66학번동기회 소식 ●●●

고려대학교 66학번 총동기회에서는 일년에 2번(봄, 가을) 여행 행사를 치른다. 이번에는 버스 4대를 대절하여 약 140여명이 참여하여 노익장을 과시했다.

- 일시 :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 장소 : 경북 영주 무섬마을, 선비세상, 소수서원 외.
- 商大 참석자 : 구본호, 김명학, 김원율, 김진하, 남효극, 이철규, 전창식, 정순달, 정 발, 한성환, 정성수 부부 11(12)명



동기회

3월회(회장: 최문봉) ●●●

5월의 3번째 월요일인 5월 19일 양재동에 있는 영덕집에서 동기들을 만나 서로의 안부와 健康을 묻고 무탈하게 '3월회' 모임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했다. 김종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고, 최문봉 총무에게 회장 자리를 승계했다. 이날 20명이 참석했다.



3월회

虎球회(회장: 신경조, 총무 : 김용한) ●●●

매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만나지만, 최근의 虎球회는 6월 9일에 모였다. 이날은 양재동에 있는 양재당구장에서 모였다. 현재 개인전 시합을 진행 중이며 첫번째 8강전에서 염수열 선수가 정 발 선수를 이기고 4강에 진출했다. 나머지 6명의 선수들(신경조, 조규용, 김창호, 김용한, 신진철, 전재영)은 아직 시합을 하지 않았다.

- 참석자 : 김창호, 신경조, 염수열, 이병익, 이연상, 이상익, 이시영, 정 발, 조규용, 한중희(10명)



호구회

이수회 (회장 : 남효극) ●●●

제111회 이수회는 5월의 둘째 수요일인 5월 14일에 명동역 3번 출구에서 만나 남산둘레길을 돌고, 장충체육관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택했으며 동국대 근처 식당 '산정'에서 식사했다. 회원들이 무엇이 바쁜지, 아니면 健康이 좋지 않은지 많이 참석하지 못해 못내 아쉬워하며 다음 달을 기약해본다.

· 참석자 : 남효극, 박삼령, 박창덕, 염수열, 이철규, 정순달, 최문봉(7명)



이수회

이금회 (회장 : 이판철) ●●●

5월 이금회는 양재동 전주옛날집에서 5월 9일 개최됐으며 그날은 조규용 동기가 비용을 부담했다. 금용계 출신들이 만나다보니 재테크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으나 이제 80대에 접어들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정답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 참석자 : 김용년, 조규용, 오익수, 김장옥, 박삼령, 박주홍, 박종훈, 김용한, 김원울, 이철규, 이판철, 박민규, 한중희(13명)



이금회

68 회장 이차복 / 총무 김종윤

미국으로 이민갔던 유신재 동기 방한 ●●●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40여 년 전 이민 간 유신재 동기가 방한해 두 번(5월 7일, 5월 27일)에 걸쳐 수서역 인근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 동기들 약 15명이 모여 대모산 산행을 한 후 점심식사를 하며, 미국에서 유통사업을 하는 유신재 동기의 이야기를 들었다. 유신재 동기는 럭비의 명문 동도공고를 나와 럭비부에 입학해 그 당시 고연전에서 연대를 매년 제압하는데 출중한 역할을 했다. 미국 생활에 여러모로 바쁘지만 방한할 때마다 우리 동기들을 만나 지난날의 학창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



동기모임

68학번 봄철 걷기: 서울둘레길 걷기 ●●●

5월 17일 서울둘레길 남부터미널에서 방배동을 순회하는 걷기 행사를 했다. 20여 명의 동기들이 동참했으며 서울둘레길을 걷고 방배동 '5구역' 식당에서 뒤풀이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몇몇 동기가 수건과 주류 등을 협찬하여 푸짐하고 넉넉한 동기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둘레길 행사에서 개교 120주년 기념 기금을 모금하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가솔로 미뤄 고



연전 선수단 후원 기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69 회장 조현용 / 총무 이영식

지청 교수님 모시기 ●●●

지 청 교수님을 모시고 서래마을 봉피양에서 모였다. 이 날 66학번 벽제갈비 회장 김영환 교수님과 69학번에서는 오경석, 권동훈, 홍광엽, 박지덕, 김은영, 조현용 동기가 참석했다. 지 청 교수님 모시는 릴레이의 다음은?



지 청 교수님을 모시고

69석영회 정기총회 ●●●

- 일시 : 2025년 6월 9일 (월)
- 진행
 - 10:30~12:00 : 1부행사-경복궁 투어
(김용언 동기 해설, 인도) 5명 참가
 - 13:00~14:30 : 2부행사-교대역 근처 남도요리명가에서 2025년 총회 및 회식, 상기 5명 포함 15명 전원 참석
- 총회안건
 - 재정수지 (2024.6.10~2025.6.8) 만장일치 승인
 - 조현용 회장 재선임 만장일치 의결
 - 특별 제안 : 2025년 하반기 중 자원 스폰서링에 의한 번개팀 수시 접수 => 1차로 김용언 동기가 11월 7일 (금) 10:30 종로3가 종묘 일원 역사문화탐방 모임 스폰서링 자원.
- 특기사항
 - 참석자 전원 기념타올 제공
 - 박지덕 동기가 아들 (박연욱 원장) 서울편한마취통증의학과의원 개업식 축하 답례로 정기총회에 20만 원 찬조
 - 이영식 총무 정기총회 영상편집 제공



석영회 정기총회

73 회장 신준식 / 총무 김순배

스크린골프동아리 출범 행사 가져 ●●●

지난 4월 23일(수), 동기회의 스크린골프 동아리의 출범 모임이 이수역 근처에 있는 골프존파크 더스크린에서 있었다. 모두 8명이 참석하였는데 4명씩 2팀으로 나눠 지금까지 필드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경기는 노대균 동기의 고향에 있는 명문 골프장인 골프존 선산카운티CC에서 가졌는데, 몇몇 동기는 스크린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전했다. 박동수 동기가 7오버파, 박종만



스크린골프동아리 모임

동기가 9오버파를 쳐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뒤풀이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스크린골프 모임을 이끌어갈 대표로 박종만 동기를 선출했고, 참석자들은 앞으로 박 동기의 열정과 노고를 기대하면서 즐겁고 유쾌한 모임이 되도록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스크린골프 모임은 매월 1회, 네번째 수요일(4수)에 정례적으로 갖기로 했다.

· 참석자: 박종만, 박성목, 박동수, 이형중, 노대균, 정기행, 신준식, 김순배

74 경영회장 장항덕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5월 남산걷기 (남산클럽회장 : 한호석) ●●●

· 일시 : 2025년 5월 3일 (월)

남산모임은 모두 10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졌다. 봄비가 조금씩 내리는 가운데 5명이 함께 밑에서 올라갔고 버스타고 정상까지 가서 합류한 동기들이 3명, 나머지 2명은 식당에서 합류하여 모두 10명이 그간 이야기들을 즐겁게 나누며 한호석 회장의 건배 제의에 빈대떡, 막걸리나 소주 한 잔 씹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에 딸을 결혼시킨 장재천 동기가 식사비를 부담하여 더욱 즐거운 모임이 됐다. 구자형 총장은 식사 후 모임을 정리했다. 동기들 몇 명은 당구장으로, 나머지 동기들은 근처 커피집에서 커피 한 잔씩 하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5월 남산걷기

경영74 수락산 산행기 ●●●

· 일시 : 2025년 6월 6일 (금)

9시에 7호선 수락산역에서 만나 선, 경, 자형 이렇게 세 명은 3번출구 노원골부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수락산에 올라갔다. 다행히 1km정도 밖에 안되서 올라가는데 무난하게 오를 수 있었다. 올라가면서 이곳저곳 쉬면서 각자가 준비해 온 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태극기가 펄럭이는 수락산 주봉(638m)을 향해 올라가는데 바위들이 많이 있어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수락산은 서울에서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과 함께 4대 명산으로 거대한 화강암 암벽에서 물이 굴러떨어지는 모습에서 수락산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주봉인 정상까지는 치마바위, 하강바위, 코끼리바위, 철모바위 등이 있고 조금 떨어지서는 독수리 바위까지 있어 바위산 느낌이 있었다. 또한 수락산은 노원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3개 구, 시에 걸쳐있어 또 다시 오고픈 명산이었다. 내려오면서 함께 계곡물에 발을 담가 피로도 풀고 젊었을 때를 회상했다. 수락골로 한참을 내려와 순대국에 막걸리 한 잔하며 피로를 풀었고 식사후 어느 빵집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매주 아침 청계산 산행을 하되 가끔 서울 근교 산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각자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오른쪽 팔뚝에 난 상처가 영광의 상처같았다. 수락산 정상을 올라간 후에 내려오다가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 팔뚝이 바위에 약간 닿은 채 미끄러지다 보니 상처나고 피도 조금 흘렀다. 수락산 밑으로 내려와서 상처를 자세히 보니 피는 났지만 상처가 그리 깊지 않아 다행이었다. 수락골 초입에 있는 약국에서 소독약을 사서 발랐다. 바위산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긴팔 셔츠를 입거나 반 팔에는 반드시 팔토시를 끼고 가야 하는 교훈을 얻었다. 어쨌든 오늘 수락산 산행은 즐거웠다.



구자형 총무의 수락산 산행



76 회장 장영린 / 총무 김덕만

경영76산우회, 울릉도 성인봉 등정과 독도 입도 이야기 (글: 산우회장 손봉원) ●●●

경영76산우회는 매월 정기적인 산행 활동과 함께 반기별로 특별산행을 기획해 회원 간의 우의를 다지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자 힘쓰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특별산행은 의미 있는 장소인 우리나라 동쪽 끝, 울릉도와 독도를 향한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산행에는 박창호, 류만우, 소병민, 손봉원, 양성수, 이흥기, 임완순, 정희식, 한호림 동기 등 9명이 함께했다.

· 독도 입도의 행운과 감격

5월 30일, 서울에서 강릉항까지 버스로 이동한 후, 강릉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3시간 만에 울릉도에 도착했다. 첫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독도 입도였다. 울릉도 도착 직후 다시 쾌속정을 타고 1시간 30분을 항해해 독도에 도착했으며, 다행히 맑은 날씨 덕분에 무사히 독도에 발을 디딜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날은 연간 약 80일 정도에 불과해, '3대가 덕을 쌓아야 입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런 귀한 기회를 누리게 된 우리 일행은 태극기를 들고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성인봉 등정, 함께 이뤄낸 정상의 기쁨

다음 날인 5월 31일에는 울릉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성인봉(해발 984m)에 올랐다. 성인봉은 이름처럼 '聖인이 되는 봉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산세가 매우 거칠고 깎아지른 절벽이 많아 결코 만만치 않은 산행 코스를 자랑한다. 이번 산행은 KBS 울릉중계소에서 출발하여 성인봉 정상에 오른 후, 나리분지 방향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산행에 능숙한 베테랑 회원들은 문제없이 오를 수 있었지만, 산행에 익숙하지 않은 동기들은 처음 접하는 난코스에 다소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따뜻한 우정 덕분에 모두가 무사히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동해의 푸른 바다는 그동안의 수고를 한순간에 잊게 해주는 감동적인 풍경이었다.

· 섬 일주와 우정의 시간

성인봉 산행을 마친 후, 울릉도 일주도로를 따라 섬을 둘러보는 일정도 진행됐다. 울릉도는 오랜 세월 해풍과 파도에 의해 깎여 만들어진 절경과 독특한 지형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으며, 크고 작은 부속섬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동기들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유쾌한 웃음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번 특별산행을 통해 경영76산우회는 성인봉 등정과 독도 입도라는 두 개의 큰 선물을 받았고, 그 속에서 동기들 간의 깊은 우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한 이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황금 같은 추억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독도 입도 기념촬영



성인봉 정상에서

· 다음 도전을 향해

다가오는 2025년 하반기 특별산행으로는 백두산 등정이 예정되어 있다. 9월 중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벌써부터 많은 동
기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백두산 정상에서 다시 한번 함께 사진을 남길 날을 꿈꾸며, 경영76산우회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79 회장 이상현 / 총무 오성호

고경79 정기모임(봄맞이 4월 모임) ●●●

· 일시 : 2025년 4월 7일(월)

마포에 있는 서리원이라는 한정식집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개나
리와 벚꽃이 길가와 들녘에는 만개하며 계절의 여왕 봄의 전령사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모임 시간 이전에 만석한 40명은 두 달 만
에 만난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악수한 손들을 놓지 못하고 막걸리
잔을 부딪치며 즐거워했다. 적당히 시간이 익어갈 무렵, 이상현 회
장이 일어나 동기회 근황과 함께 “화창한 봄날, 친구들 파이팅!”라
는 건배사로 인사하여 건배 구호가 바뀐 것에 놀라 많은 동기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정기모임

이어서 오성호 사무총장은 작년에 학교에 전달한 79장학위원회 장학금은 이미 두 명의 해외유학생에게 졸업전에 지원됐고, 상반기
(5월 30일) 벤처창업경진대회 지원비로 지원될 예정인 바, 대회에서 동기회장의 인사말과 시상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뜻있는 동
기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고지했다. 골프회장 김성태는 지난 2월 보름간 미서부 골프투어 갔다 온 후기와 월례회를 없애고 행사 중심
의 골프투어를 하겠다고 밝혔다. 산우회장 장덕윤은 월례 산행은 꾸준히 하되 7월 말에는 무의도 섬 산행과 트레킹, 해수욕을 겸한 1
박2일을 동기회 전체의 참여를 고려한 행사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당구회장 이성훈은 월례대회의 꾸준한 진행과 더불어 6월에는 부
산당구투어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 있는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축구회장 서종산은 5월에 있을 가족체육대회날을 조율
중이며 확정되는대로 고양시의 풋살장에서 진행하고, 가을에는 유럽축구 직관투어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 있는 동기들의 참여를 촉
구했다. 또한 그동안 수고해온 이영태 총무에 이은 이청기 신임 총무의 인사도 이어졌다.

이날은 특별히 이성훈 당구회장의 생일이어서 간단하게 케익에 불을 켜고 축하송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부딪히는 술잔과 마주치
는 얼굴의 미소는 우리를 좀 더 젊게, 즐겁게,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을 알기에 봄날의 화사한 꽃처럼 실컷 웃는 날이 되
었다. 사진은 멋쟁이 신사 안희준 교수가 작품으로 만들어 주었다.

고경79산우회 4월 무등산 산행 ●●●

· 일시 : 2025년 4월 25일(금)

새벽부터 설쳐서 6시 30분에 교대역에서 만난 고경79산우회 18명
과 함께 전남 광주의 무등산국립공원을 향했다. 오늘은 지각생(?)
없이 출발하여 준비한 샌드위치를 먹으며 10시께 도착하였으나 준
비한 행동식량을 잊고 집에 놔두고 온 관계로 산행지 입구의 음식



무등산에서



점에서 계란말이와 삼합, 족발을 급히 주문해 먹고 10시 반쯤부터 산행을 시작했다.

증심사를 지나 커다란 당산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 뒤에 오르다가 중머리재에 못미쳐 등산로에 앉아서 막걸리와 함께 안주겸 식사겸 배를 채웠다. 산행 완주를 포기한 동기 5명을 남겨두고 13명은 중머리재를 지나 장불재를 향해 올랐다. 도중에 세 명이 체력 고갈로 뒤로 처지고 10명이 장불재에서 입석대로 올랐다. 아마도 산 정상 근처에 주상절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오래전의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각변동이 있었던 것 같다. 입석대를 지나 이무기가 승천하였다는 승천암을 지나 서석대에 올랐다. 가까이 보이는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의 天·地·人 세 개의 정상은 시간 관계로 포기하고 서석대 근처에서 인왕봉까지 다녀온 한병로 동기까지 모두 모인 것을 확인한 후에 하산하기 시작했다. 역새와 능선길이 어울린 중봉을 거쳐서 중머리재에 도착하여 원점회귀의 산길을 따라 하산했다. 도중에 만난 백종일, 박천용 두 거사와 어우러져 안전하게 증심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남도의 명산, 특히 산중의 주상절리에 감격하며 자연의 신기하고 오묘한 섭리에 감사했다. 뒤풀이로 간 남도요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목한정식'은 대통령이 방문할 정도의 유명한 맛집에서 각종 요리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었다. 수고한 회장, 총무 등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KUPGA79 2025 춘계골프대회 ●●●

- 일시 : 2025년 5월 25일(일)
- 우승 이종훈 (신페리오 74타), 메달리스트 신동익 (83타), 롱기스트 방용원 (260m), 니어리스트 서종산 (1m), 다보기 정준돌, 행운상 송상호

일동레이크 춘계대회는 맑고 화창한 5월의 하늘 아래 열렸으며 열여덟 명의 동기들이 어우러져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초일류 수준으로 리모델링한 일동레이크CC에서 우리들은 최고의 골퍼였다. 만찬은 한우, 장어를 비롯한 산해진미와 최고급 와인을 아름다운 테라스 정취에 젖어 다 함께 마시고 즐겼다. 다시 한번 만찬을 베풀어준 신동익 회장에게 감사드린다. 이번이 세 번째로 타이틀 로고 볼을 후원해준 정준돌 동기에게 감사드린다. 참가상 철원 오대산 쌀은 해외 원정 골프여행 때의 출신원 기념으로 김성태 회장이 후원했다. 아름다운 출신원 기념패를 선사해준 신동익 회장에게 고마운 마음 전한다. 그리고 이상현 총회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후원금 100만 원을 쾌척해 주어 감사드린다. 김성태의 통기타 공연과 더불어 멋진 곡을 열창해준 양희창 동기에게도 감사드린다.



춘계골프대회

충북 단양 도락산행 ●●●

- 일시 : 2025년 5월 29일(목)
- 장소 : 서초동 우리주막 그루터기

충북 단양에 있는 도락산(道樂山)에 고경79산우회에서 함께 올랐다. 아침 일찍 교대 근처에서 콩나물국밥으로 식사하고 출발, 10시 반께 도착한 상선암탐방센터를 지난 선암가든을 들머리로 삼아 오르기 시작했다. 구석구석 암릉과 가파른 산길을 따라 시속 1km의 속도로 한참을 오르니 제봉(弟峰, 815m)이 나타났다. 다시 내리막을 걷다가 치고 오르기를 여러 번 하고 나서야 형봉(兄峰)이 나타났다. 형봉 아래 삼거리 안부에서 네 명은 쉬고 여섯 명은 도락산 정상(965m)을 가기 위해 신선봉(914m)을 거쳐 내달렸다. 정상 인증샷을 남기고 삼거리 안부에 내려와서 점심으로 준비해온 막걸리와 오이냉채, 소세지, 과일 등을 나눠먹고 하산길에 접어들었다. 하산길에도 역시 거쳐야 하는 오름 짓의 봉우리들은 더운 날씨와 더불어 많이 지치게 했다. 채운봉을 지나고 검봉을 지나서야 본격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들 수 있었다. 거리는 길지 않았으나 암릉 구간



도락산에서

과 가파른 산세로 인하여 고생한 하루였다. 산행거리는 총 7.2km이고 4시간 45분 걸렸다. 제대로 땀을 한 바가지 흘렸음과 무탈함에 감사하는 산행이었다.

뒤풀이로 자리 잡은 선암가든에서 닭백숙과 오리백숙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고, 마주 보이는 용두산세를 보면서 우담 송시열 선생이 방문했다는 절경의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귀경길에 오르자마자 굿바이하는 거센 바람과 나뭇잎들의 손짓에 갑작스러운 폭우성 소나기가 쏟아지며 하루가 마무리됐다. 서울에서 단양까지의 왕복 거리를 15인승 렌터카로 안전 운행 해주고, 산상 행동식을 준비해준 집행부에게 감사드린다.

경영79장학위원회 소식 ●●●

· 일시 : 2025년 5월 30일(금)

고대 경영대학 주최하고 KUBS Startup Station에서 주관하는 2025 Summer Season 창업경진대회인 STARTUP EXPRESS가 LG-POSCO경영관 Supex Hall에서 있었다. 이 행사는 일진글로벌, 동화그룹, 고대경영79동기회가 후원했다.



경영79장학위원회 '테르밋'팀에게 포상

스마트연구원장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우리 경영79장학회의 대표로 이상현 회장이 연구원장의 감사패를 받은 후,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전했다. 경영학과 07, 09학번의 아들과 며느리를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의 한국인2, 3호 교수로 두고 있다는 이 회장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된 인사말에서 “해외 유명 대학으로의 유학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국내 벤처산업의 기동으로 자라나서 세계를 아우르는 창업기업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은퇴기에 접어든 동기들의 뜻 있는 기부로 시작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타대학, 타학번에도 전달되기를 기원한다. 꿈은 꾸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시킬 때 우리의 미래가 있다. 후배들이 그 역할을 해달라”면서 마무리했다.

14시 25분부터 시작된 경진대회에서는 테르밋, NOBEL IDEAS, 가온, 타르트, 듀링, CEEDERS, ANYWAY, 하늘천, 프랜챗, 강익메이트 AI, 소셜리, 마인드플랩스 등 12개의 팀이 발표하여 심사를 거쳐 9개 팀이 입주사로 선정되어 경영대학 스마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1년 동안의 무료 지원을 받아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7시 20분까지 심사를 거쳐 고경79 포상 3팀, 동화그룹 포상 1팀, 일진글로벌 포상 1팀을 선발하여 포상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KUFC79(경영79축구회) 가족체육대회 ●●●

· 일시 : 2025년 5월 31일(토)

· 장소 : 고양시 원당 웨이크스 구장

‘안암골에서 1979년부터 공 차던 인연’으로 엮인 전설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집합시간인 12시보다 일찍 가족과 함께 나타났다. 광 여행 후 모처럼 가족들까지 모여 그동안 못다한 얘기하면서 우거지 갈비탕, 차돌 된장국 등을 점심으로 때우고 체육대회 복장으로 한복한 후 운동장에 2시에 집합했다. 단체 사진 촬영 및 이상현 동기



KUFC79 가족체육대회

회장의 축사를 마치고 8년간 KUFC 총무를 맡아 세대를 넘어 손주까지 세계 최고 동문 가족 모임으로 만드는 데에 대한 공로로 이영태 동기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본격적으로 ‘40명의 대혼란 속’의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를 4개 조로 구성해서 족구, 종합오락(공굴리기, 탁구공 굴리기,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등), 축구 세 경기를 치르고 조별상, 개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가족체육대회는 로또 당첨(?)급으로 만족도 높았으며 한우고기 등 먹거리 푸짐하고, 웃음과 땀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였다.



80 회장 권현준 / 총무 하만우

호산회 소식(회장: 한성수, 산악대장: 이현우) ●●●

· 3월 8일(토) 남산둘레길

날씨가 추워져 최저기온이 영하 7도라고 한다. 그래도 바람이 별로 없고 햇볕이 있어 매섭던 날씨가 많이 풀려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넘었다. 참석인원은 16명으로 원정 산행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그동안 뒤풀이만 참석하던 동기들도 산행에 함께 참여했다. 서울 중심의 남산을 가다보니 코스도 무난한데다 수원, 위례, 일산, 김포, 분당 어디서든 치우치지 않고 올 수 있는 곳 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남산둘레길 타임캡슐

충무로역 4번 출구를 나와 한옥마을로 접어들니 많은 사람들이 제각각 떠들며 한층 부드러워진 날씨를 즐기고 있었다. 잠깐 타임캡슐에 들러 2394년에 후손들이 열어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았다. 앞으로 370년 후,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단체 사진을 찍고 다시 올랐다. 포장도로를 벗어나 샛길로 빠져 오르락내리락 걷다 조그만 정자에 올라 중풍을 했다. 식당 예약 시간이 2시여서 별도로 간식 준비를 안했는데 그래도 여러 동기들이 이것저것 싸온 것을 풀어놓고 함께 먹었다. 3월이면 꽃이 필 길로 생각했는데 감감무소식이어서 실망했는데, 친구가 준비해온 빨간 딸기와 파란 사인머스켓, 노란 오렌지가 각각 아름답게 핀 꽃을 연상시켰고, 과자와 양갱 등 적당히 배를 채우기에 충분했다. 정규연, 최승석 고문의 리드로 숲속 오솔길을 올라 남산타워로 갔다. 그곳에서 바라본 강북 서울의 빌딩 모습이 신축과 리모델링 등으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워 광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뒤풀이 식당을 향해 하산했다. 잘 꾸며진 돌계단을 내려와 남산도서관 앞 광장을 가로질러 퇴계로를 통해 뒤풀이 장소인 중식당 '홍복'에 도착했다.

주류파와 비주류파가 반반으로 나뉘어 앉았고 탕수육과 고추잡채 요리에 짜장면, 짬뽕으로 배부르게 먹는데 오랜만에 참석한 함덕식 교수와 현경섭이 큰 입술, 작은 입술을 찾으며 양기를 뽐내었다. 다음에는 여 산우도 초대해서 음양의 기운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조화롭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오늘 모처럼 많은 회원들이 나와 주어 고맙고 코스를 리드해 준 이현우 대장, 서정 고문, 최 고문께 감사드리며 이제 몸도 풀었으니 4월 산행은 보다 건강한 코스로 정해볼까 한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 4월 26일(토) 북한산 의상능선

오늘 산행지는 북한산의 의상능선, 그중에서 증취봉, 용혈봉, 용출봉 세 봉우리를 잘라 올라가서 국녕사로 내려오는 코스로 호산회 입장에서는 다소 도전적인 코스였다. 우리 실력에 의상능선을 의상봉에서 문수봉까지 다 돌기에는 무리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집행부에서 우리 실력에 맞게끔 코스를 설계했다. 그래도 만만치 않을 거란다.



북한산 의상능선

연신내역에서 동기들을 기다렸는데 부산에 사는 전병오가 처음 왔다. 산행은 못하고 북한산 입구까지만 함께 갔다가 다른 일정으로 헤어져야 하는데 잠깐이라도 호산회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연신내역에서 버스로 진관사 입구로 이동, 삼천탐방지원센터를 지나 넓은 공터에서 월천 최윤식 선생의 리드하에 몸을 풀었다.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서인지 온통 연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조금 올라가니 삼천사라는 규모가 큰 절이 보였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세웠다고 하니 역사도 오래되었고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왜군과 싸웠던 절이라고 소개되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유서 깊은 절이다.

하행민, 전병오는 삼천사에서 헤어지고 절을 지나니 좁은 산길로 이어진다. 계속되는 오르막이다. 모처럼 리드를 맡은 서 정 고문이 속도를 냈는지 우리 행렬은 앞뒤가 길게 늘어졌다. 뒤쪽에 처져서 힘들고 숨이 차오고 허기도 느껴지는 그때, 적당한 곳에 자리를 펴고 중풍을 했다. 빵과 김밥, 각종 과일, 견과류에 과자 등 이것저것 먹다 보니 배가 불러왔다.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다시 출발. 부왕동 암문까지 가는 길은 계속 오르막으로 쉽지 않았다. 부왕동 암문에 도착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피로가 싹 가셨다. 여기서는 능선을 타고 갔다. 증취봉은 커다란 바위덩어리, 그 앞에서 이창우와 현경섭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회해서 내려갔다. 커다란 바위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듯한 증취봉에 오르면 바위를 요리조리 밟는 재미가 느껴졌다. 봉우리에 올라서 주위를 보니 야! 경치가 끝내줬다. 바로 밑을 보면 천 길 낭떠러지인데 멀리 보이는 봉우리들을 보면 참 경치가 좋았다.

계속해서 용혈봉, 용출봉을 정복하고, 가사당암문에서 국녕사 방향으로 하산하기로 했다. 국녕사에는 커다란 부처상이 있다. 나라의 안녕을 기리는 절로 원효뿐만 아니라 의상대사가 수도했고, 임란 때는 사명대사가 나라의 위기를 지켜내던 절이라고 한다. 국녕사를 지나 내려와서 이창우와 현경섭을 만나 뒤뜰이 식당으로 이동했다. 들꽃식당 음식은 다 맛있었다. 곤드레 비빔밥, 주꾸미 비빔밥, 코다리 튀김 그리고 반찬으로 나온 호박찜 등등 이 식당을 추천한 서 정 고문의 공력이 느껴졌다.

오늘 많은 동기들이 와줘서 고맙고 오려다 못 온 박 훈, 김영호, 하만우 아쉽고, 잠시 왔다 딴 길로 간 하행민과 전병오도 앞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다음 달에 아들과 딸을 혼인시키는 한종원과 채교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오늘 산행을 리드해준 서 정 고문과 이현우 대장에게 감사드린다. 다음 달에는 동기회 야유회로 청남대에 가는데 호산회 행사를 함께하기로 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전체 모임 ●●●

· 5월 31일(토) 청남대 봄 야유회

구름이 살짝 끼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다소 시원한 날씨 덕에 청남대 봄나들이를 잘 다녀왔다. 부부 15쌍, 싱글 9명, 전체 39명의 동기들과 사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반 청남대 나들이는 시종 차분하고 화기애애하게 정규언 세종캠퍼스 학장님의 리드로 진행됐다.

역대 대통령님들의 휴양지란 명성에 어울리게 경치도 뛰어나고, 잘 가꾸어진 수목 환경이 도시생활에 지친 심신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다. 또한 정규언 박사가 찾아낸 점심 식당도 깨끗하고 편안했는데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하여 아주 만족스러웠다. 보고 싶던 동기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반주도 한잔하고 오손도손 사는 얘기도 나누니 우정도 더욱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함께 참석하신 사모님들 또한 즐거워하시니 행사를 준비한 임원진들의 수고도 느껴졌다.

점심 식사 후에는 인근 문의문화유적단지에서 갤러리의 미술작품 감상도 하고 대청호수에 수몰된 마을을 재현해 놓은 모습도 둘러봤다. 시간은 왜 이리 빨리 흐르는지 아쉬운 마음이 컸다. 항상 건강과 큰 행운이 고대 경영80 가족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야유회를 마무리했다.



청남대 봄 야유회



골프회 ●●●

· 4월 1일(수) 마이다스밸리

모처럼 따뜻한 날씨 속에 올 첫 번째 월례회를 4팀 16명이 참석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모처럼 참석한 서 정, 장석수 동기의 녹슬지 않은 실력을 감상하기도 하고 그동안 밀린 얘기들로 공치는 게 뒷전인 팀도 있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저녁 잘 먹고 헤어졌다. 이번 월례회 때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의 6월 월례회(3일 화요일) 참석을 고대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4월 1일 라운딩

· 6월 2일(월) 마이다스밸리

원래 화요일이 정기월례회인데 선거 때문에 갑자기 요일이 바뀌었는데도 4팀 가득 채워 저력을 보여 주었다. 예보와 다르게 조금씩 비가 와 걱정했는데 실제 라운드 시에는 한두 방울 떨어진 것 외에는 시원하고 공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날씨가 되어 즐거운 라운딩이 되었다. 이선용 동기의 9번 홀 버디로 와인도 한 병 받아 맛볼 수 있었고 서 정 동기의 재치 어린 입담, 정창식 동기의 견제로 이봉기 동기가 버디도 못하고 모처럼 이상교 동기 얼굴도 보고... 등등 많은 화제를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보냈다.



6월 2일 라운딩

일수회 ●●●

· 6월 4일(수) 남포면옥

일수회는 1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소모임이다. 기억으로는 한 번도 생략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올해 2분기에도 4월 2일에 원주추어탕에서, 5월은 연휴가 많아 5월 12일에 옥된장 종각점에서 모여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6월 모임은 냉면 맛집으로 유명한 남포면옥에서 모였다. 계속 좌장을 맡아온 한성수 동기가 개인 일로, 김상준 동기는 회의 때문에, 이수영 동기는 시카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아들 학위수여식에 간다고 빠졌다. 대신 권현준 회장이 참석했고 양후석, 최병수 동기가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른 소모임들도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원래 사진을 잘 찍지 않는데 호상지에 올려야 한다고 제안해서 6월 모임의 사진을 남긴다.



일수회 모임

경영86 동기모임(두목회) ●●●

두목회는 골프나 등산 외에 다양한 소확행 프로그램을 모색하며 가벼운 담소자리로 다른 동기모임과 중복을 피하고 격월로 두 번째 목요일에 만남을 추구하는 모임이다. 올해 첫 모임을 4월 10일

(목)에 17명의 동기가 서초역 근처 꽃담에서 만나 은퇴 전, 후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과 건강에 대한 답소를 나누었다. 경하기 제작 기념으로 경하기 앞에서 활짝 웃으며 기념사진 찍었다. 2025년 두 번째 모임은 6월 12일(목) 8명의 동기가 교대역 근처 미담재에서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동기모임에 자주 나와서 만나자!!



정수연 회장



이공명 총무



4월 동기모임

마루회 3월 산행 (마루회장 : 오석훈, 총무 : 오인환) ●●●

2025년 3월 8일에 경영대 86학번 등산모임인 마루회의 올해 두 번째 산행을 진행했다. 3월 산행코스는 아차산이었으며 비교적 무리 없고 평이한 코스로 약 3시간 등산했다. 화창한 봄 날씨 속에 좋은 산과 수려한 한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었다. 나이 들수록 더욱 멋져가는 동기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루회 3월 산행

마루회 5월 산행 ●●●

2025년 5월 10일에 경영대 86학번 마루회의 올해 세 번째 산행을 20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진행했다. (뒤풀이에 2명 합류하여 총 22명) 이번 코스는 서울 둘레길 11코스(관악산 코스)였다. 지하철 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낙성대, 애국의 숲길 전망대, 무당골 전망대, 관음사를 거쳐 사당역에 도착하는 경로로 산행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봄비가 내리는 중에도 5월의 푸르른 녹음을 즐긴 후 점심은 사당 전 골목으로 가서 풍성한 전과 막걸리를 즐기며 막걸리 찬가도 합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루회 5월 산행

호림원 (경영86골프회장 : 유재열, 총무 : 강봉주) ●●●

3월 21일, 4월 25일, 5월 16일 금요일 오후 이천 마이더스CC에서 3팀이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골프장에서 금요일



호림원 모임



오후에 친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집안의 애경사에 여러 동기들이 축하와 위로에 감사하며 후원을 해주어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뒤늦게 골프에 입문하는 동기도 부담 없이 같이 즐기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첫 여성 동기 회장인 정수연 동기의 골프 입문을 위해 여러 동기들이 노력하고 있다. 8월에는 골프회장배 대회로 4팀 이상 참가하도록 계획 중이다.

89 회장 김평국

정종원 동기의 개업소식 ●●●

정종원 동기가 지난 1월 공신력 1위 시장점유율 1위인 한국금거래소 고척아이파크몰점(B동 1층)을 오픈했다. 골드바부터 다양한 금 주얼리까지 준비되어 있어 특별한 날 기억될 선물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 반지 등 보유하고 있는 금을 현금화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종원 동기는 하나은행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각광 받고 있는 금 투자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것이다.

· 상담 및 문의 : 정종원 대표 010-8926-0001



정종원 동기의 개업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리고 싶은 교우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kubs.or.kr

한국도 아이스하키와 30년...인생과 경영, 사랑의 지혜를 얻다



서 명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
저 자 정몽원(경영74 · 경영대 교우회 명예회장)
출판사 브레인스토어
출판일 2025.3.28.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는 거친 빙판에서 시련을 만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또다시 일어나 앞만 보고 달렸던 정몽원 회장의 아이스하키 인생을 오롯이 담았다. 정몽원 회장은 불굴의 도전 정신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중공업, 자동차 산업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HL그룹(전 한라그룹) 창업자 선친 정인영 회장의 못지않은 끈기와 집념으로 기업의 재도약을 이끌었다. 정몽원 회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해체 직전의 상황에서 독심으로 살아남아 핵심 계열사를 되찾으며 재기에 성공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작용한 것이 바로 아이스하키에 대한 열정이다. 정 회장에게 아이스하키는 삶의 축이자 생활 철학이고, 기업 경영과도 일맥상통한다.

‘외환 위기 쓰나미’와 코로나 팬데믹 등의 악재 속에서도 아이스하키 팀을 지켜냈으며 2013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취임하여 남녀 대표팀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본선 출전을 성사시켰고 남자 대표팀은 2018년 월드챔피언십이라는 꿈의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이러한 공로로 정 회장은 2020년 한국인 최초 국제 아이스하키연맹(IIHF)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 경영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이 책을 집필하며 한국 아이스하키가 진정한 강국의 반열에 오를 그날을 꿈꾸며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

이 책에는 웃음기 가득한 에피소드와 함께 무시와 냉대, 좌절과 시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던 정몽원 회장과 HL 안양 아이스하키단,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겨있다.

황금벼는 일부러 고개 숙이지 않는다



서 명 황금벼는 일부러 고개 숙이지 않는다
저 자 장진원(경영76)
출판사 레드메히아
출판일 2025.3.31.

‘황금벼는 일부러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인문교양과 자기계발의 성격을 지닌 책으로, 오랜 기간 겸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서양의 수많은 고전과 심리학, 인지과학 등 현대과학이 입증한 인간 심리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한 겸손의 실체를 보여준다.

저자 장진원 교우는 책의 서두에서부터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법한 ‘겸손하면 손해 보는가?’라는 솔직한 질문을 던진다. 그는

CFO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겸손의 손익계산서’라는 제목 아래 겸손의 장단점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 책은 ‘당당한 겸손’을 새롭게 제시하며, 겸손의 자세와 자량의 기술 간 균형을 강조한다. 그리고 겸손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실제 경험,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겸손을 기르는 방법을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행사비·회비 인상 안내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항상 경영대학 교우회를 성원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2월 20일 상반기 상임이사회 결의사항에 의거하여, 물가 상승과 회비 납부 인원의 감소로 교우회 재정 확충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행사 참가비와 교우회 회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모아주시는 정성은 교우회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교우들의 결속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대학 교우회가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참가비 인상

	변경 전	변경 후
힐링트레킹	2만원	3만원
교우의 밤	10만원	12만원

일반회원 연회비, 평생회비 인상

	변경 전	변경 후
연회비	3만원	5만원
평생회비	30만원	50만원

입금계좌 | 하나은행 391-910009-79704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 입금하실때 학번, 성함 기재 부탁드립니다.

예) 95홍길동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학습이 성장을 만들고, AI가 경영을 바꿉니다.

교육의 깊이를 넓히는 **LXP**
회사 **맞춤형 AI**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RAG 솔루션**
디유넷은 디지털 전환의 두 축을 모두 제공합니다.

**에듀테크
전문회사**

**IT솔루션
전문가그룹**

**인공지능(AI)
Provider**



Edutech BIZ

“
온라인 교육 솔루션 기반
실시간 온라인 교육시스템 및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 제공
”



IT Solution BIZ

“
기업, 공공기관, 협회 등
다양한 고객의 Needs에 맞춘
IT서비스 제공
”



**AI Service
& Solution BIZ**

“
AI 인프라 서비스 및
AI 에이전트 컨설팅
AI-MSP Solution
RAG Solution & Experience
”

미래를 향한 일진의 혁신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은 글로벌 No.1 자동차 휠 베어링 메이커로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 하겠습니다



휠 베어링과 샤시부품에서 산업용 베어링,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합니다

ILJIN

국내법인 | ILJIN GLOBAL • ILJIN GLOBALHOLDINGS • ILJIN BEARING • ILJIN CORP • BEARING ART

해외법인 | 미국 ILJIN USA • ILJIN AMERICA • ILJIN ALABAMA 중국 ILJIN TIANJIN • ILJIN BEIJING • ILJIN CHONGQING • ILJIN JIANGSU • ILJIN SHANGHAI

유럽 ILJIN GmbH • ILJIN MOTION & CONTROL GmbH • ILJIN SLOVAKIA 인도 ILJIN INDIA • ILJIN GLOBAL INDIA

판매사무소 | PARIS (FRANCE) • TURIN (ITALY) • PUNE (INDIA) • BEIJING (CHINA) • YOKOHAMA (JAPAN) • SAOPAULO(BRAZIL)

일진그룹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7 Tel 02-553-1795 Fax 02-566-5621 www.iljin.com

일진그룹 회장 이동섭 (경영89)